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칼뱅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 사회·경제사상과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중심으로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 전공

안재홍

# 칼뱅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 사회·경제사상과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중심으로 -

지도 박 경 수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Th.M)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7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 전공

안 재 홍

안재홍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_\_\_\_\_

부 심 \_\_\_\_\_

부 심 \_\_\_\_\_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년 7월 일

## 감사의 글

목회의 길로 불러주시고 신학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논문을 지도해 주신 박경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귀한 가르침과 나눔이 있었기에 이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어주시고 소중한 지도를 해주신 서원모 교수님, 배요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신학을 통한 귀한 가르침을 주신 임희국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업의 기회를 주신 동안교회 김형준 담임목사님의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들, 섬김의 자리에 늘 서있는 청년부 연합회 지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기도로 신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중보와 섬김의 큰 빛을 지고 있는 소중한 영혼의 친구인 아내 경훈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며,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며 주님 부르실 때 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Soli Deo Gloria!

2008년 7월

안 재 홍

# 목 차

I. 서론 .....	1
A.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II. 칼뱅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칼뱅의 관심 .....	6
A. 칼뱅시대 제네바의 사회·경제적 상황 .....	6
B.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칼뱅의 관심 .....	8
III.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	14
A. 공동체 사상과 칼뱅의 관심 .....	14
B. 사회적 메시지와 칼뱅의 관심 .....	17
C. 경제윤리와 칼뱅의 관심 .....	25
1. 부와 빈곤 이해와 사회적 약자들 .....	25
2. 노동과 임금 이해와 사회적 약자들 .....	31
3. 자본과 금융질서 이해와 사회적 약자들 .....	37
IV.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	44
A. 칼뱅시대의 사회복지와 칼뱅의 관심 .....	44
1. 칼뱅시대의 사회복지사상 .....	44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칼뱅의 관심 .....	48
B. 이중집사 제도와 칼뱅의 관심 .....	51
1. 집사 제도에 대한 칼뱅의 이해 .....	51
2. 이중집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들 .....	56
C. 종합구빈원과 칼뱅의 관심 .....	58
1. 종합구빈원의 기원과 발전 .....	58
2. 종합구빈원과 사회적 약자들 .....	61
D. 프랑스 기금과 칼뱅의 관심 .....	65

1. 프랑스 기금의 기원과 발전 .....	65
2. 프랑스 기금과 사회적 약자들 .....	69
V. 결론 .....	74
A. 요약 .....	74
B. 시사점 및 제언 .....	76
참고문헌 .....	79

# I. 서론

## A.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우리 사회에 이른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 국가 안에서 소수의 절대적 부와 다수의 절대적 빈곤을 지향하는 양극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및 고착화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파생시킨다.<sup>1)</sup>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논의들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성서의 정신<sup>2)</sup>을 구현해야 하는 교회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응답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자는 개혁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칼뱅과 제네바교회를 주목해 보았다. 칼뱅이 목회하던 16세기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발흥과 정착이라는 종교적인 변혁의 시기였음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세의 사회·경제 질서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던 격변의 시기였다. 제네바는 종교개혁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역학 관계의 변화, 상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경제 질서의 새로운 개편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럽 지역의 프로테스탄트 난민들의

---

1) 채수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운동,” 『기독교사상』 통권 505호 (2001. 1): 87-102.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양자를 거의 동일시하거나 둘이 반드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유종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통권 137호, (2007. 9): 154-55.

2) 성서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약자는 ‘가난한 사람’(출 23:6, 신 15:7, 욥 31:16-23, 시 14:6, 68:10, 잠 14:31, 19:17, 사 1:17, 10:1-2, 25:4, 렘 5:28, 22:3, 겔 16:49, 마 19:21, 14:7, 눅 18:22, 행 10:31, 갈 2:10, ‘나그네’ 또는 ‘거류민’ 그리고 ‘외국인’(출 22:21, 레 19:33-34, 신 10:17-19, 27:19, ‘고와와 과부’(출 22:22-23, 신 14:28-29, 24:17-21, 욥 22:8-10, 시 82:2-4, 109:16, 렘 22:3, 슥 7:9-10, 딤후 5:17, 약 1:27), ‘억눌린 자’ (시 146:7-8), ‘힘없는 자’ (암 5:11-12), ‘품꾼’ (말 3:5) 등이 있다.



급격한 유입이라는 특수한 상황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뱅에게는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수행했던 사회와 시민생활 속에서의 여러 역할들을 그들의 새로운 개혁구상에 따라 재구성해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즉, 칼뱅은 교회 내적인 개혁과제들과 더불어 당시 종교개혁의 한 중심지로서의 제네바의 사회·경제적 여러 다양한 요청들에 응답해야 하는 절실한 과제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칼뱅은 제네바 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성서이해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관심을 가지며 교회가 정부, 즉 시 당국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합당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그의 개혁구상과 실천의 저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 공동체 전체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놓여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그의 사회·경제사상의 저변에 놓여있는 관심은 제네바 시의 가난한 자들, 프로테스탄트 피난민들에 대한 사회 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칼뱅은 성서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이 자본주의와의 연계성에 대한 막스 베버(Max Weber)로부터 시작된 논의들<sup>3)</sup>로 인해 칼뱅을 이른바 ‘자본주의의 영적 아버지’로 보는 견해가 없지 않다.<sup>4)</sup> 그러나 제네바에서 그가 보여준 사회·경제적

---

3) 이 논의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1904-5년에 걸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이라는 논문을 발행한 후 시작되었다. 이른바 베버 명제라고 불리는 이 논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특히 칼뱅주의와 관련한 종교개혁의 정신과 자본주의의 발흥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는 견해이다. 특히, 근대적 자본주의의 성장은 상당한 정도로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베버가 루터주의에 대조되는 뜻으로 말한 금욕적 형태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부르즈와지 계급은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특히 칼뱅주의적 프로테스탄트, 혹은 프랑스의 위그노, 영국의 청교도들과 같은 칼뱅주의적으로 결합된 교회들 속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베버명제는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보다도 훨씬 더 오래 된 것이며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야기 하는 데는 프로테스탄티즘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학설 등에 의해 반박되는 등 다양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왔다. Robert W. Green,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이동하 역,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 베버 명제와 그 비판』(서울: 종로서적주식회사, 1981), 3-25. 베버명제와 그 비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위의 책을 참고하라.

문제에 대한 교회적 응답들은 비엘레(André Biéler)가 말한 대로 “만약 막스 베버가 18세기의 그것이 아니라 16세기의 칼뱅주의를 연구했다면 그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sup>5)</sup>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칼뱅은 후대의 칼뱅주의와 달리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역사적 형태에서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은 칼뱅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sup>6)</sup>

본 연구는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청들을 제네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제네바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응답의 중심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이른바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공세’<sup>7)</sup> 속에서 한국교회에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인 디아코니아의 구체적 실천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시사점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칼뱅에 대한 사회·경제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기초로 하고 있다.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에 관한 논의는 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

4)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Geneva: WCC Publications, 2005), 423-54.

5) André Biéler,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97. Calvin의 발음에 대해서는 역서명이 ‘칼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 모두 ‘칼뱅’으로 통일한다.

6)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423-54.

7) 이남주,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한반도 변혁,” 『창작과 비평』 통권 139호, (2008. 3): 12-30. 전지구적 자본주의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생산과정에서의 국제 분업의 빠른 발전, 금융자유화로 촉진된 지구화와 함께 출현했고,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중국 등의 개혁정책을 통해 지역적으로 그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켜왔다.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영향력을 증가시킨 신자유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된 현상이기도 하며, 따라서 장기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와는 구별된다. 위의 책, 14.

(Max Weber)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sozialen 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1912)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칼뱅주의적 윤리가 자본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보는 관점을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쟁점의 발단이 되어왔다.

비엘레는 『칼뱅의 경제·사회사상』(*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1961)을 통해 이른바 ‘베버 명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베버의 주장은 칼뱅이 의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칼뱅주의자들의 사상이었다고 보면서,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을 ‘개인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개인주의’<sup>8)</sup>라고 이름 하였다.

비엘레의 뒤를 이어 그레이엄은 『건설적인 혁명가 칼뱅과 그의 사회·경제적 영향』(*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1971)을 통해 역시 베버 명제를 비판하면서 칼뱅주의 정신은 자본주의와 다르며 오히려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월리스(Ronald S. Wallace)는 『칼뱅, 제네바 그리고 종교개혁』(*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1988)을 통해 칼뱅의 가르침은 자본주의의 경쟁원리와는 상반된 것이며 이는 칼뱅의 정신과 다른 것임을 주장했다.

부스마(William J. Bouwma)는 『존 칼뱅: 하나의 16세기 초상화』(*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1988)에서 칼뱅의 경제사상이 ‘자본주의적’이었는데 ‘기독교 사회주의적’이었는데 하는 문제에 대해 이 두 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그가 칼뱅을 인문주의자로서의 관점에서 하나의 칼뱅이 아닌 이 두면이 공존한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sup>9)</sup>

한편,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을 사회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들(Robert M. Kingdon, J.K.S. Reid, Robert W. Henderson)이 있다. 특히, 킹던(Robert M. Kingdon)이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칼뱅을 연구한 결과물(*A New View of Calvin in the light of the Registers of the Geneva Consistory*, 1997)들로 인해 칼뱅연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sup>10)</sup>

---

8)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99.

9) 이양호, “칼빈의 경제사상,” 『신학논단』 제20집 (1992. 8): 111-14.

10)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제6회 소망신학포럼자료집』 (2007. 4): 12-21.

본 연구는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을 비엘레의 ‘사회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제네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한 그의 사회·경제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을 킹던과 맥키(Elsie A. McKee), 올슨(Jeannine Olson) 등의 연구결과<sup>11)</sup>를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칼뱅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사회·경제사적 관점들을 종합하면서 그 논의들의 중심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놓여 있음을 밝혀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칼뱅이 활동하던 16세기 제네바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그의 이해와 관심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문제의 이해에 있어서 칼뱅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았고,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제네바의 목회사역에서 설교와 성경주석 등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윤리에 나타난 칼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우선 그의 소유와 부, 빈곤에 대한 이해와 경제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지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중세의 봉건적 경제 질서에서 상업의 발달 등의 초기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로 급격한 전환기에 있었던 제네바에서의 노동과 임금, 상업과 금융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하는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이 제네바의 현실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칼뱅의 디아코니아 실천의 성서적·신학적 기반이 되는 이중집사 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제네바의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기금을 통해 디아코니아 사역이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11) 킹던(Robert M. Kingdon)과 맥키(Elsie A. McKee)는 칼빈의 이중집사 제도에 대해 각기 사회사적 관점과 성서주석적, 신학적 관점으로 설명했으며, 올슨(Jeannine E. Olson)은 칼뱅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구체적 산물인 프랑스 기금에 대한 가장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시행했다. 국내에서 칼뱅의 사회복지에 대해 킹던과 맥키, 올슨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박경수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제6회 소망신학포럼자료집』 (2007. 4)이 있다.

## II. 칼뱅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칼뱅의 관심

### A. 칼뱅시대 제네바의 사회·경제적 상황

칼뱅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상과 관심을 오늘날의 관점에서가 아닌 칼뱅 당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칼뱅이 활동하던 당시 제네바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칼뱅이 활동하던 16세기는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출현이라는 큰 격변기에 있었다. 중세의 경제조직인 협동적인 길드 조직은 자본가들에 의한 경쟁체제를 통한 생산판매 제도로 바뀌게 되었으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sup>12)</sup>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16세기에는 급격한 물가의 상승을 경험했는데 특히 제네바의 경우 난민들의 유입과 식료품등의 부족이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칼뱅의 설교와 공식 문서들을 보면 이에 관한 많은 언급들을 볼 수 있는데, 투기현상과 상업 활동들이 있었으며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성장이 있었다. 한마디로 16세기 제네바에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있었고 사치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sup>13)</sup>

칼뱅 당시 제네바는 무역의 교차로에 위치한 상업도시였고 무역의 요충지였기에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지역이었다. 제네바는 지중해로부터 유럽대륙 중앙으로 향하는 무역로를 지닌 유럽의 경제적 중심시장 중의 하나였다. 특히 제네바에는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준 정기적으로 서는 시장이 있었다. 1462년에 프랑스 루이 11세는 프랑스의 리옹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제네바의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 결과 제네바는 경제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위축과 더불어 정치, 종교적인 이유에서의 추방, 군사적 목적을 위한 도시 교외지역의 감소는 제네바 인구의 일시적 감소로 이어졌다. 제네

---

12) Ronal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홍치모 역, 『16세기 종교개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219.

13)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Geneva: WCC Publications, 2005), 122-28.

바에 대한 역사자료에 의하면 1475년 11,000명 이던 제네바의 인구는 1537년 10,3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던 중 제네바에는 개신교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큰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동안 제네바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589년에 이르러는 13,000명까지로 증가했다.<sup>14)</sup>

제네바로 유입된 난민들은 수 천 명에 달했는데 그들은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본유입의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16세기 유럽에는 수많은 종교적 피난민들이 있었다. 이들 개신교 난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진취적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개신교 피난민들을 대하는 나라들의 태도는 이중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난민들에 의한 새로운 기술과 자본 등은 환영받았지만 이주한 나라의 노동자들 간에 긴장감과 일종의 배척이 있었다.<sup>15)</sup>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입되는 피난민들에 대한 제네바 시민들의 태도에 대해 네페(William G. Naphy)는 이른바 ‘외국인 공포증’과 ‘신앙고백적 연대감’이 함께 있었다고 표현한다. 피난민들의 기술과 부는 제네바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 제네바 상인들의 반발도 발생했다.<sup>16)</sup>

개신교 난민들은 현존하는 전통적 수공업자들의 길드조직 같은 곳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립해야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이른바 경제적 개인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sup>17)</sup> 이러한 16세기 초 제네바로 유입된 프로테스탄트 난민들은 제네바의 경제적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칼뱅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문제와 특히 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며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의 개혁의 방향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sup>18)</sup>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칼뱅 시대의 제네바는 사보이 공국과 주변의 스위스와 프랑스와의 역학관계 속에 놓여있었다.<sup>19)</sup> 당시, 제네바는 작고, 군사적으

---

14) *Histoire de Genève, des origines à 1798* (Geneva: Société d'Histoire et 'Archéologie de Genève, 1951), 227.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130에서 재인용

15) Ronald H. Bainton, 『16세기 종교개혁』, 228.

16) William G. Naphy, "Calvin's Geneva,"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2-35.

17) Ronald H. Bainton, 『16세기 종교개혁』, 228.

18)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130-34.

로 불안한 고립된 도시였다. 제네바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교차로로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었다. 동쪽으로는 베른의 위협,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북쪽의 평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프랑스의 위협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력을 공고히 하려던 사보이 공국은 수도를 관할지역내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제네바로 재배치했다. 그러나 제네바는 사보이 공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스위스 도시국가로의 편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제네바는 베른의 군사적 도움을 얻었고, 개신교를 채택한 베른의 영향으로 제네바도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사보이 공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에 제네바는 사실상 베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칼뱅은 바로 이런 정황에서 1536년 혁명 공화국의 상황에서 제네바로 들어가게 되었다.

1538년에 이르러 제네바는 베른에 더욱 영향을 받는 상황에 놓였고, 정치 권력이 교회의 영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이에 반대한 칼뱅과 파렐은 추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제네바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안정이 필요했던 제네바 당국은 칼뱅을 다시 초청했고 그는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sup>20)</sup>

이처럼 칼뱅시대의 제네바는 중세의 봉건주의적 사회경제질서가 재편되는 동시에 프로테스탄티즘의 발흥과 확산이라는 종교적인 영향과 변화의 중심에 서있었다고 볼 수 있다.

## B. 사회 · 경제문제에 대한 칼뱅의 관심

칼뱅의 사회 · 경제사상을 연구한 비엘레(André Biéler)는 칼뱅은 사회 · 경제문제 이해에 있어서 성서적인 전통과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고려하였다고 본다. 칼뱅은 부, 가난, 노동과 무역 등과 같은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전통적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

19) 위의 책, 122.

20) William G. Naphy, "Calvin's Geneva," 25-29.

이러한 특징은 특히 이자대부에 관한 칼뱅의 이해에서 잘 드러나는데, 칼뱅은 그것에 관한 엄격한 신학적인 고찰과 동시에, 이자율이 당시의 과학적 지식의 한계 내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이러한 엄격한 분석은 칼뱅으로 하여금 16세기의 경제적 상황에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게 했고 불변하는 복음의 윤리적 진리를 기존의 관점과는 다르게 새로운 현실에 적용해 나가도록 했다.<sup>21)</sup>

칼뱅의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제네바 교회가 국가에 대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칼뱅이 제네바에서 신정국가를 건립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대개 불식되어진다.<sup>22)</sup> 칼뱅은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이른바 신정정치(神政)의 이상과 관련하여 당시의 재세례파에서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는 방법으로서의 성직자가 통치하는 신정정치 체제와는 달리, 제네바에서 정치 관리와 성직자의 직임을 구별했다. 칼뱅과 그의 동료 목사들은 정치적 직임이나 관리의 권한을 지니지 않았다. 또한 칼뱅은 당시 윈스터의 재세례파처럼 구약의 율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sup>23)</sup>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칼뱅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과업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제네바 교회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을 제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화국을 위한 세속적 헌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제네바 교회법령의 가장 보수적인 특성은 도시의 봉사구조로서의 사회복지 제도를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서 잘 드러난다. 즉, 시의회가 선출한 종합구빈원의 행정관과 그의 조력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sup>24)</sup>

칼뱅은 모든 인류는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고 서로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만들어졌기에 공동의 선과 호혜적인 의무를 위한 교류의 필요성을 말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개개인이 지닌 재능과 선물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sup>25)</sup>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회복되기

---

21)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455.

22) 위의 책, 113-14.

23) 이양호, “칼빈의 종교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기독교사상』 통권334호, (1986. 10): 29-38.

24)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29-31.



를 소망했고, 이것이 그의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그의 핵심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칼뱅은 이웃을 위한 개인의 책임을 언급하며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제기 하면서 기본적으로 빈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한다. 칼뱅은 “부유함과 좋은 결과들은 하나님의 축복에만 달려있는 것”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부와 가난과 멸시와 존귀가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칼뱅은 가난한 자가 현재의 상황의 개선을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했지만, 부를 추구함에 있어서의 과도한 욕구나 탐욕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sup>27)</sup>

칼뱅은 만약 인간 공동체에서 상호간의 교통이 존재한다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점에서 칼뱅은 특히 인간 상호간의 연대책임을 강조했음을 보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았다. 칼뱅은 고대 구약의 희년을 통한 채무의 면제와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할 수 있는 부의 집중을 피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칼뱅이 가난한 자를 얼마만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자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들의 필요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상기시켰다. 즉 칼뱅은 그들에게 청지기 정신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칼뱅의 견해는 그의 고린도후서 8장 13-15절의 주석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균등함이라는 개념이다.<sup>28)</sup>

균등함(equality)은 두 가지로 고려될 수 있는데, 각각에게 균등한 양이 주

---

25) J. Dempsey Douglass,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Church & Society* Vol. 74 (March/April 1984), 7.

26) J.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211.

2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I, 7, 9. 이후 *Institutes*, III, 7, 9와 같이 표기한다.

28) J. Dempsey Douglass,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76-77.

어질 때 상호간의 보충의 의미 혹은 공정한 배분의 의미이다. 나는 이 균등함이라는 단어를 각각이 그가 지닌 공정한 몫을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바울은 이 단어를 골로새서 4:1에서 상전에게 종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바울은 조건과 상태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 종들에게 지녀야 할 은유함과 친절한 인내를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닌 자원들의 공정한 분배를 명하시는데, 그것들이 허락되는 한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 결과 어떤 이는 풍요롭고 어떤 이는 궁핍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sup>29)</sup>

칼뱅의 사회경제적 윤리를 이해하는 데 창조 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인간 존재의 상호 연대와 교류를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연대성과 교류는 인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그리스도의 사회로서의 교회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성령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칼뱅의 사회적 활동과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는 그의 신앙과 영성의 사회적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칼뱅에 관한 영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리스(J. H. Leith)는 기독교인의 삶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은 사회를 위한 실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칼뱅이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의 삶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으로서의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이다.<sup>31)</sup> 이 책임은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인류의 상호책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특히 리스는 칼뱅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그가 사회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공동체적 연대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음에 주목한다. 즉, 리스는 하나님의 형상이외에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의 또 다른 근거는 복음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사회적 행동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참된 종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칼뱅은 종교는 모든 사회적 행동들의 근원이라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종교적 기초 없이 사회적 책임을 증대

---

29)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6), 2 Corinthians 8:14. 이후 *Comm on 2 Corinthians* 8:14와 같이 표기한다.

30)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60-61.

31) *Institutes*, III, 7, 4.

하려는 노력들은 추상적인 것으로 본다. 사회적 책임성을 증대시키려는 어떤 순수한 인간적인 노력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들의 창조질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칼뱅은 이처럼 신앙이 윤리를 결정짓는 것이며, 사회적 행동과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종교는 거짓된 것이라고 보았다.<sup>32)</sup>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기독교를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도록 만든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숭고한 개념과 함께 사람들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국가에 관한 부분에서 다루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직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일반적인 저작물들과 설교에서는 이러한 책임에 대해 계속 다루고 있다. 제네바에서 발행된 연보를 보면 칼뱅은 제네바 시민들의 정치·경제적 복지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칼뱅은 제네바의 교구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으며 모든 인간들은 서로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가르쳤다. 칼뱅은 특히 사업이나 경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서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는 반복적인 부정한 사업과 거래에 대해 반대했으며 정직한 노동을 강력하게 지지했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모든 칼뱅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논의와 실현에도 불구하고 비엘레는 칼뱅의 개혁은 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학적 개혁이었음을 상기시킨다. 즉, 칼뱅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의 결과로서 종교적 개혁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차적인 결과들 보다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 사회적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4)</sup>

한편,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난민들에 대한 관심은 그가 슈트라스부르크에 머물렀을 때의 난민 목회를 통해 개발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곳에서의 피난민 목회의 경험은 칼뱅이 제네바교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

32) J.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188

33) 위의 책, 190-91

34)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155-56.

35) Lorna Jane Abray, *The People's Reformation: Magistrate, Clergy, and Commons*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피난민들과 같은 이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제네바에서의 종합구빈원과 제네바 교회의 집사직, 집사들의 의료와 피난민을 돌보는 역할과 프랑스 기금 등을 통한 디아코니아의 실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칼뱅은 사회·경제 질서 속에서의 사회적 약자는 마치 병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통치자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로 이해했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칼뱅의 제네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져 갔다.

전반적으로 칼뱅의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이해는 성서적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충분한 현실 적합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웃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적인 상호책임의 조명하에서 사회·경제문제를 이해하려고 한 노력들과 하나님의 형상과 종교적인 측면을 사회적 행동들의 근원으로 파악하면서 사회·경제문제와 교회와 정부의 역할이나 상호 협력적 관계를 논의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경제이해에 있어서 이자대부 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그의 경제이해에 있어서의 이른바 현실 적합성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

*in Strasbourg, 1500-1598*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84-85.

### Ⅲ.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 A. 공동체 사상과 칼뱅의 관심

칼뱅의 사회사상에 있어서 항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그의 관심이다. 칼뱅은 사회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다.<sup>36)</sup> 칼뱅은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우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잘못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7)</sup>고 본다. 이러한 비난은 부자들을 향한 것인데, 칼뱅에게 있어서 부는 공동체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 특히 공동체 내의 가장 빈곤한 구성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만일 굶주린 자가 그 굶주림을 구제받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sup>38)</sup> 이라는 인식은 칼뱅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다.

칼뱅은 “우리 모두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청지기이며 우리들의 청지기직의 계정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sup>39)</sup>고 언급한다.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진 부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맡겨진 것이며 청지기 정신이 요청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칼뱅은 요한복음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주석하면서 “부자들은 그들의 부에 대한 계산서를 어느 날에는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주의 깊고도 충성스럽게 그들의 풍요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한다”<sup>40)</sup> 고 말한다. 그는 가난한

36)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01.

37)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W. B. Eerdmans, 1963), 122:6. 이후 *Comm on Psalms* 122:6과 같이 표기한다.

38) *Comm on Isaiah* 58:7.

3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I, 7, 5. 이후 *Institutes*, III, 7, 5와 같이 표시한다.

40) *Comm on John* 6:13.

자들의 필요를 위한 효과적인 대비를 주장했다. 그것은 정돈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구제가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적합하면서도 올바른 지출에 근거한 자선이어야 함을 말한다.<sup>41)</sup>

칼뱅의 실제적인 상식,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의 맥락 안에서의 그의 율통성은 시편 15편에 대한 이해에서 잘 드러난다. 고리대금업으로 대표되는 올바른지 못한 여러 경제 행위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그는 우리가 곤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보편적 사회정의라고 본다. 동시에 그는 변리로 대금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도 부당한 해를 끼치지 않고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sup>42)</sup> 이처럼 칼뱅에서 있어서 기독교 사회의 토대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공동체에 대한 부단한 의식이다.<sup>43)</sup>

알브스(Abel A. Alves)는 칼뱅이 당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지속적인 전쟁, 기근, 인플레이, 토지 소수 독점화 등의 상황가운데서 전체 사회공동체를 돌보는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 육체의 유기체적인 비유의 사용을 강화했다고 본다. 특별히 공동체의 영적 건강은 빈민구제와 같은 실제적인 관심사와 연계되어 있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분배해 주는 것보다 더 사회적 교통함을 상징해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sup>44)</sup>

한편, 칼뱅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의 타락에 의해 깨어진 인간자아와 사회를 재구성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즉, 그리스도는 그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고, 그의 유익들을 전달하기위해 죽으셨으며,<sup>45)</sup>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애는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의 결과로서 자기부인으로 대치해야 한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선을 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모든 생각들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을 그

---

41) *Comm on Psalms* 12:9.

42) *Comm on Psalms* 15:5.

43)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201-03.

44) Abel A. Alves, "The Christian Social Organism and Social Welfare: The Case of Vives, Calvin and Loyola,"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0, No. 1 (1989), 4-7.

45) *Comm on 2 Timothy* 1:9.

만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맡겨진 것들임을 배웠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들은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 분배될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유익들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교회의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 조건으로 맡겨진 것임을 가르쳐준다.<sup>46)</sup>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와 사회의 구분이 모호하게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웃이라는 용어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델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제네바는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 유기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인간의 영적이고 세속적인 면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곳이었다.<sup>47)</sup> 또한 칼뱅은 모두의 공공선을 위한 한사람의 자기 위치에서의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헌신이며 경건한 사회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이해한다.<sup>48)</sup>

왜냐하면 만약 그 구성원들이 다른 기능들을 가지지 않고 서로를 위한 봉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자가 강자를 지배한다는 이 개념은 적절한 사회질서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개념으로서, 마치 욕망과 욕신의 정욕이 이성애 의해 잘 조절되어야 하는 것과도 같다.<sup>49)</sup>

칼뱅은 기독교 사회적 유기체의 공공의 선은 신자 개인의 이기적인 유익보다 앞서야 한다고 설교하고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의 행정관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는 기구들을 설립했다. 제네바 개혁에 있어서 칼뱅이 개입하기 전에, 시 행정관들은 1535년 종합구빈원의 설립을 통해 빈민구제의 합리화의 과정에 참여했다. 1541년 칼뱅의 교회법령은 이미 제네바에서 시행중이던 과정을 다시 재확인하고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칼뱅의 이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모든 성도의 교통합이라는 이상은

---

46) *Institutes*, III, 7, 5.

47) Abel A. Alves, "The Christian Social Organism and Social Welfare: The Case of Vives, Calvin and Loyola," 9.

48) 위의 책, 10.

49) *Comm on 1 Corinthians* 12:17.

16세기 제네바의 정치적 화합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sup>50)</sup> 이러한 이상은 고린도 전서 10:6 주석에서 잘 나타난다. 칼뱅은 성만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축복된 잔을 코이노니아, 즉 그리스도의 피안에서의 교통함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사람들이 묻는다. 역으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 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하나로 묶여있고 그 결과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연합은 코이노니아 또는 교통함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나는 이것을 빵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로 말했다. 더구나 나는 즉각적으로 나중에 부연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빵을 나누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문맥으로부터 우리는 코이노니아 혹은 피의 교통함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 안으로 접목시킬 때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이뤄지는 연합함 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51)</sup>

적어도 종교개혁 동안에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유기체에 대한 비전은 살아 있었다.<sup>52)</sup> 칼뱅의 도시와 사회를 유기적 공동체로 보는 비유는 성서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생명공동체의 유기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 이처럼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칼뱅의 관점은 전체 사회 공동체를 돌보는 유기체적 비유에 기초하고 있었다.

## B. 사회적 메시지와 칼뱅의 관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칼뱅의 관심은 제네바에서의 그의 목회사역에서 그가 전달한 사회적 메시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피난민들과 같이 당시의 사회·경제구조 속에서의 기득권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

---

50) Abel A. Alves, “The Christian Social Organism and Social Welfare: The Case of Vives, Calvin and Loyola,” 17-19.

51) *Comm on 1 Corinthians* 12:17.

52) Abel A. Alves, “The Christian Social Organism and Social Welfare: The Case of Vives, Calvin and Loyola,” 20.



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칼뱅의 설교, 성경주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칼뱅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선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가 주도하여 나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관심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공감대를 이루고 협력관계에 있었고<sup>53)</sup> 칼뱅은 이와 관련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칼뱅은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어야 함에 대해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같이 첫 소산물과 예물을 드리는 법은 없다. 그러나 자비로운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이다. 사도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뛰어나게 보여준 것처럼. 이 가르침은 성서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거기서 우리는 곤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야하는 형제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희생제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목하자. 만약 한 사람이 자원이 있을 경우, 그가 가진 좋은 것으로 자신을 잘 부양할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궁핍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54)</sup>

칼뱅은 교회는 국가로 하여금 약한 자들과, 강자들이 억압하거나 부자들이 착취하는 사회에서 힘이 없고 중요치 않게 여겨지는, 아무도 보호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칼뱅이 바라본 정의로운 국가는 억압받는 자들과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국가이다. 이런 점에서 칼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 무질서는 이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한 경멸이었고, 반대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정의로운 정부에 대한 시금석이었다.<sup>55)</sup>

칼뱅은 재판관에게 주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에 대한 권력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다. 칼뱅은 하

---

53)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44-49.

54)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27, 206. *Sermon LXXXIV on Deuteronomy 12:19-23*,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293에서 재인용.

55)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260-62.

나눔께서는 불의함이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재판관들의 불의와 잔혹함을 정죄하신다고 본다.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은 종종 언급되는데,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거의 보호와 도움이 없는 상태에 있으며, 많은 사악한 일들 앞에서 마치 먹이감처럼 모욕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하고 정의로운 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을 언급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정의로운 통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이 공정하게 대해질 때 진정한 신실성의 증거이다.<sup>56)</sup>

칼뱅은 교회가 국가를 향해 지닌 직무 중에서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지켜주도록 국가를 격려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히 시편 82:3을 주석하면서 칼뱅은 마치 병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은 통치자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롭고 잘 정비된 정부는 가난한 자와 고통 받는 자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질 것이다...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들은 그에 비례하여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데 담대해지며, 그런 까닭에 부자들은 통치자들에게 좀처럼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그들 중에서 상처입고 쓰러진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사건들이 주로 천거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데, 왜냐하면 부자들의 손쉬운 먹이 감과 사악한 행위가 되기 쉬운 사람들은 아픈 자들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이나 통치자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진리가 가난한 자들의 수호자로 임명되었고 그들의 임무 중 특별한 부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해진 사악한 일들에 대항하며, 모든 불의한 폭력을 진압하는 일인 왕들이나 재판관들의 심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완전한 정의가 온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sup>57)</sup>

이처럼 칼뱅에게 있어서 정부의 가치를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대우였다.<sup>58)</sup> 한편, 개혁자로서의 칼뱅은 부와 가난에 대한 그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부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말미암은 일들과 결과들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그는 이러한 기독교의 왜곡된 행동들을 다음과 같이 질책하고 있다.

---

56) *Comm on Jeremiah* 7:6.

57) *Comm on Psalms* 82:3.

58) W.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85-86.

호화스럽게 살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서도 사치스럽고 허세부리는 연회나 몸치장, 집안 건축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 이웃보다 더 우아함을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그의 부유함에 은근히 우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되고 있다.<sup>59)</sup>

빈곤이 그 시대의 환경에 의한 것임을 알았던 칼뱅은 가난한 자들과 빈곤의 문제를 성서의 원리에 따라 판단했다. 16세기 제네바의 사회적 차원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칼뱅은 신명기 15장의 말씀 등을 통해 빈곤의 문제에 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 중세의 빈곤이해를 비판하면서, 중세의 지배적 생각이었던 가난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과 탁발종파들이 지녔던 자발적 가난의 이론을 통해 가난을 거룩하게 만들며 종교적으로 고양시키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가난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응답은 일하는 것이며, 빈곤을 벗어 버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칼뱅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의 사자로 보내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있어서 단지 이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회이며 의미 있는 삶의 기회인 것이다. 칼뱅은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본다.<sup>60)</sup>

칼뱅은 재화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고 생각했다. 칼뱅은 부와 재산에 대한 국가의 기능에 있어서 재산이 사적인 축적과 채무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사회적 억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지의 재분배와 채무탕감을 정기적으로 하게 한 성경의 희년 법을 하나의 규범으로 제시하기도 했다.<sup>61)</sup> 칼뱅은 물질적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며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 칼뱅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은 정확하게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 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물질의 선물들은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교회의 유익

---

59) *Institutes*, III, 19, 9.

60) Hans Scholl,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rmed Tradition," 243-45.

61) André Biéler,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67-68.

을 위한 것이다. 또한 칼뱅은 한 개인의 물질적인 자원들은 그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칼뱅은 이러한 지식은 물론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칼뱅은 이러한 비이기심을 달성하는 가능한 방법은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는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청지기정신은 사랑의 법에 의해 시험 된다”고 말한다.<sup>62)</sup> 이러한 칼뱅의 청지기 정신은 직접적으로 그의 구제에 관한 가르침으로 연결된다.<sup>63)</sup>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것들의 상호간의 나눔은 공동체나 회중의 구성원들에게로만 제한되지 않으며, 참된 교회의 자선행위는 국가나 교회와 상관없이 국경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은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참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영향이나 도덕적 타락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만약 필요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구제받기를 원하신다....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그네들을, 그들은 완전히 우리와 낯선 사람들이데, 그들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면서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가난으로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범죄일 것이다.<sup>64)</sup>

칼뱅은 어느 곳에서 보다 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양심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동시에 그것을 시험하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물들이 그들의 것이라는 권리를 하지 못하게 경고하신다. 교회는 부자를 향한 가난한 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sup>65)</sup>

---

62) *Institutes*, III, 7, 5.

63) Bonnie L. Pattison,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Eugene: Pickwick Publication, 2006), 137-38.

64)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59 vols. (Brunswick: Schwetzke and Son, 1863-1900), 27, 309, *Sermon XCII on Deuteronomy 14:24-29*.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308에서 재인용.

65)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303-09.

섬김, 이 단어는 이 말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대함은 더 많은 찬사와 명예로 표현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바울은 같은 몸 안에서 그들의 동료 구성원들을 향한 신자의 의무를 기억했다. 그리스도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섬길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를 돕게 될 때, 그들의 당연한 권리였던 섬김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성도 돕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불친절 그 이상의 것이 된다.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sup>66)</sup>

여기에서 성도가 가난한 자를 돕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하지 않은 것은 불친절 그 이상이며,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말하는 칼뱅의 관점은 강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칼뱅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던 종교적 피난민들에 의해 유입된 제네바의 인구가 팽창하자 제네바의 주택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이 커다란 주택을 사용한다면 그는 비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야심에 부풀어서 집을 쓸데없이 늘려서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한 사람이 몇 가족이 살아도 될 만한 집에서 산다면 그것은 헛된 과시이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만 집과 가정에서 즐기려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뺨뚫린 곳에서 살거나 살 곳을 찾아 어딘가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sup>67)</sup>

또한 칼뱅은 특별히 제네바인과 외부인들 사이의 긴장의 원인이 된 다음의 문제에 대해 자주 관심을 보였다.<sup>68)</sup>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의 축출과 관련된 이 단락에서 망명가들, 도망자들 특히 주님께 대해 고백했다는 이유로 추방한 신자들에게 친절하고 신실해야 함을 배워야만 한다. 이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야만성이나 잔인함보다 주님의 눈에 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재앙이 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원한다면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며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을 거절하지 말자.<sup>69)</sup>

---

66) *Comm on 2 Corinthians* 9:1.

67) *Comm on Isaiah* 5:8.

68) William J. Bou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00, 286.

칼뱅은 부의 힘에 대한 남용을 비난하는데, 칼뱅은 그것을 특별히 정죄를 받을 만한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제멋대로의 권력과 착취를 증대시키기 위해 그들이 재촉하는 방법이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저항할 수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고 보았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이 부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정죄를 당했다고 비유로 말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목졸라 죽이지는 않으며, 판단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의 힘을 향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자리에 섬으로써, 정의를 타락시키고 순진한 자들을 파괴시키는 다양한 구상들을 준비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참으로 그들은 죽음과 심판의 대행자이다....그러나 동시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복수는 이미 준비되었고 그것은 빠를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sup>70)</sup>

칼뱅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데, 이는 죄악된 인간본성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해악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죄한다.

우리의 이웃들을 희생시키면서 소유물들과 돈을 획득하는 모든 직업들,, 그들은 도둑으로 여겨져야 한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자들이 종종 재판관 앞에서 승소할 때가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둑으로 붙잡아 두신다. 왜냐하면 그는 교묘한 자들이 순진한 마음에 덮을 놓기 시작한 미묘한 속임수를 간파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놓은 부당한 요구들의 완고함을 보고 계신다.<sup>71)</sup>

칼뱅은 특히 국가권력이 부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에 대해 착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행정관들이 돈 앞에서 묵과해주는 것에 대해 칼뱅은 구약의 아모스 주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69) *Comm on Isaiah* 16:4.

70) *Comm on James* 5:6

71) *Institutes*, II, 8, 45.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의 계획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불평해왔던 억압들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였다. 심지어 그들을 그들의 채무자의 갈고리 발톱에 넘겨주고, 그들을 현금을 받고 팔아넘김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선물이 주어진다 면 이것은 당신을 만족시킬 것이다.<sup>72)</sup>

칼뱅은 또한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투기는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면서, 자신은 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모스 성서주석을 통해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73)</sup>

여기까지 선지자는 부자들의 사악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부자들은 기근의 때에 가난한 자들의 목구멍을 짓밟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우리는 참으로 가난의 영향과 부족함의 압박에 대해 알고 있다.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 그들은 수백 번이라도 얼마가 들어서 자신들을 구조하기 보다는 수백 번이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팔아버릴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선지자는 이 불법-부자들이 항상 깨어서 사건을 살펴보는 것. 그들은 곡물이 비싼 가격일 때를 살펴보고는 “지금 바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 손으로 떨어지게 되는 때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또 다른 환경이 이러한 불법을 더 악화시키는데-그들은 밀의 찌꺼기를 팔아버린다....왜냐하면 우리는 결핍이 보통사람들을 압박할 때, 그런 강도와 약탈자들이 보통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밀을 거의 팔지 않으며, 겨와 찌꺼기들도 거의 팔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사악함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늘날 개발된 것이 아니다.<sup>74)</sup>

칼뱅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있던 시대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쳤다. 그의 사회적 메시지는 사회 공동체내의 가난한 자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72) *Comm on Amos* 4:1

73)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300-02.

74) *Comm on Amos* 8:6

## C. 경제윤리와 칼뱅의 관심

### 1. 부와 빈곤 이해와 사회적 약자들

비엘레(André Biéler)는 칼뱅의 경제생활에 대한 개념은 개인적 사회주의 혹은 좀 더 적절하게 말하면 사회적 개인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칼뱅이 개인의 권리와 재화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전체 사회의 필요를 존중하면서 균형을 추구했음을 의미한다. 즉, 칼뱅은 인간은 노동과 돈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며, 국민과 국가 사이에 경제적 연대와 부의 지속적인 재분배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는 칼뱅이 개인과 사회를 항상 동등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75)</sup>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 내에서의 사회적 결속의 회복은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관계도 포함한다. 칼뱅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사회 안으로 모인다고 말하면서 집사제도를 바로 이처럼 교회 지체들의 물건과 재화들을 교회 안과 밖으로 나눠주는 기능으로 보았다.<sup>76)</sup>

칼뱅은 물질적 재화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돈은 이 재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시는데 도구로써 사용하신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화에 대한 청지기 정신과 아울러 상호 연대책임의 관점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본다. 돈은 실용적 기능뿐만 아니라 영적 기능도 감당하고 있는데, 칼뱅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의 부의 상호유통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시의 만나의 재분배를 새로운 경제 질서의 한 예로 들었다.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 하였느니라”(고린도후서 8:15)는 말씀과 같은 형태의 경제 질서 내에서의 균등함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칼뱅은 부자를 일컬어 가난한 자의 봉사자라고 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사랑과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보내진 자들이며 이런 까닭에 가난한 자들을

---

75)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99.

76) 위의 책, 40.



‘하나님의 수취인’이며,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대리자들’ 이라고 불렀다.<sup>77)</sup>

칼뱅의 생각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즉, 하나님은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에 의한 구제의 선물을 받을 적합한 그릇으로 가난한 자들을 지명하신다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함으로서 존경과 충성을 표할 수단으로 제공하신다는 것이다. 칼뱅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의 한 부분을 섬기기 위해 임명된 대표자들이다. 디모데전서 6:19 주석에서 칼뱅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모든 것들은 그분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신다는 말은 사실이다”<sup>78)</sup>라고 말한다.

만약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또한 칼뱅은 마태복음 25장을 주석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sup>79)</sup>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난한 자들을 통해 드리신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역을 등한시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중대한 경시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청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sup>80)</sup> 칼뱅은 “그리스도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곤궁에 당한 자들을 위해 임명되셨다”<sup>81)</sup>고 이해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게 하고 교회안의 가난한 자들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한다.<sup>82)</sup>

또한 칼뱅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자이심을 자처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가난한 자들의 목적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이다.”<sup>83)</sup> 또

---

77) 위의 책, 54-58.

78) *Comm on 1 Timothy* 6:19.

79) *Comm on Matthew* 25:40.

80) Bonnie L. Pattison,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323-24.

81) *Comm Matthew* 11:4-5.

82)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290.

83) *Comm on Psalms* 140:13.

한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간의 도움이 없다하더라도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낮은 곳을 하감하시기 때문이다.”<sup>84)</sup> 칼뱅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직접 빛진 자로서의 가난한 자를 대신하시는데, 그가 언젠가 갚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건 간에 풍부한 이자로 갚으신다.”<sup>85)</sup>고 이해한다.

칼뱅이 제정한 교회내의 직분으로서의 집사는 모든 지체간의 재화의 상호 교류라는 독특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칼뱅은 돈이 영적 흐름의 삶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오게 했는데, 경제적 재화의 존재 이유를 되찾았고 경제가 이 땅위에서 해야 할 봉사의 사명을 부과했다. 아울러 그는 교회의 집사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영적 연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재화가 교회의 모든 지체 가운데 골고루 흐르도록 재확립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sup>86)</sup>

칼뱅은 중세의 금욕적 전통에서 생각한 것 같이 가난을 거룩함의 표지로 보지도 않았으며 또한 저주의 표지로 보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풍요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칼뱅에게 있어서 가난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창조질서의 손상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sup>87)</sup>

부스마(Willam Bouwsma)는 다른 인문주의자들처럼 칼뱅 역시 부를 옹호했다고 보면서 물질적 불평등은 인간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실임을 인정한다고 본다.<sup>88)</sup>

칼뱅은 우리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들보다 어느 정도는 고상하게 사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평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굶어 죽지는 않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남는 것을 축적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부자들이 단정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

---

84) *Comm on Deuteronomy* 10:17-19.

85) *Comm on 1 Corinthians* 16:2.

86)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64.

87) J. Dempsey Douglass,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76.

88)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196.

움을 주지 않으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환경에 따라 더 풍요롭게 사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친 빵을 먹고 빈약한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sup>89)</sup>

칼뱅은 사유재산이 사회의 질서에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90)</sup>

각 사람이 자기의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즉 어떤 사람들은 구입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상속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각자의 능력과 육체적 노동 또는 다른 방법들에 의해 재산을 증식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유지에 합당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치적 질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것을 소유할 것을 요구한다.<sup>91)</sup>

칼뱅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백성의 전체 공동체의 고통경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제네바의 부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규칙이었다.

그레함(W. Fred Graham)은 사실 칼뱅의 사회와 경제 사상에 어떤 중심 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부가 우리의 형제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다는 것이라고 본다.<sup>92)</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운명을 돌보라고 요청하신다. 그리고 더욱 특별히 실직상태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원조가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보조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요청하신다. 이러한 억압의 이유는 부자와 권세자들이 불운하게도 종종 그들의 힘을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데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자들의 힘의 잘못된 사용은 가난한 자들이 보호의 수단을 빼앗기고 그들을 보호해줄 조직이 사라지는데 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칼뱅은 이에 대해 “부자들은 그들이 지닌 힘으로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버린다” 라고 말한다.<sup>93)</sup>

---

89) *Comm on 2 Corinthians* 8:15

90)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197.

91) *Comm on Exodus* 16:17

92) W.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95.

93) *Comm on James* 5:6

칼뱅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경멸하고 약자와 사회의 낮은 자를 억압하는 것을 사회적 무질서로 여기신다고 말한다. 그러한 경멸과 억압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존중할 신적 질서와는 정확히 정반대인 것이다.<sup>94)</sup>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도록 되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역할의 결과로써, 공동체를 위해 잉여의 물건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인 부자들에게는 적게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분배의 대행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진다. 가난한 자들, 즉,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많이 주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부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의무가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보았다.<sup>95)</sup>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손에 이익을 주셨다는 조건을 고려하라. 이는 그들이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즉, 그 인간애의 요소는 우리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수단들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풍성함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말이다. 비록 세금이나 어떤 종류의 부과금의 질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은 그들에게 옥수수나 포도주를 둘 다 주셨는데 그것은 그것을 부족한 사람 혹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이다.....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정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 필요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열해지지 않고 궁핍에 있는 자들이 구제받도록 하기 위함이다.<sup>96)</sup>

칼뱅은 부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행자로서 부자들이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들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칼뱅은 부자들을 가난한 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렀다. 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그들의 손에 놓여진 선한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더 많은 부요함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sup>97)</sup>

94)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364-65.

95) 위의 책, 284.

96)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59 vols. (Brunswick: Schwetzkke and Son, 1863-1900), 28, 199. *Sermon CXXI on Deuteronomy 24:19-22*,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284에서 재인용.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의 필요이상으로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세우셨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나의 특별한 성품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들이 나로부터 나가기 때문이다. 나는 이 땅을 풍성하게 창조하였다. 그 과실을 맺도록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에게 그의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그의 대행자인 것처럼 세우신다. 그리고 그 영예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든 부자들은 선을 행할 것이 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성품이 그러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수행하는데 그들의 이웃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sup>98)</sup>

이러한 사역자, 대리인, 대행자 등과 같은 용어들은 물질적 상품들의 상호 간 교통하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회 안에서 인간들 사이에 세워나가기를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영적 교제와 정확하게 조화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sup>99)</sup>

이처럼 부와 빈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칼뱅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정당한 부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의 법칙을 기억할 것을 요청한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부자들과 공동체 전체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칼뱅은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라는 가르침을 해석하면서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교훈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제는 단지 우리에게 남아도는 것을 나눠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만약 정상적인 수입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에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재산이 감소할 정도로 관대함으로, 토지를 팔아치울 정도까지 하라”<sup>100)</sup>는 말씀인 것이다.

칼뱅은 교회의 영적인 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은사의 상호교통이라

---

97) *Comm on Acts* 11:29.

98)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28, 204. *Sermon CXXI on Deuteronomy 24:19-22*,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284에서 재인용.

99)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284.

100) *Comm on Matthew* 6:19.

고 불리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같은 방식으로 칼뱅은 그리스도의 몸의 정치적, 사회적 건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 교통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러한 상호교류는 공동체의 생명의 피와 같은 구성원 상호간의 돈의 유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의 분배에 관한 주제에 대해 칼뱅은 부는 다른 사람들이 지닌 것으로부터 부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로 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 당국이 상업을 고무시키고 여는 정도는 부의 흐름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칼뱅은 삶의 법칙으로서, 후한 부가 있는 곳에는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의 후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했다. 만약 한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는 “그의 기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조심스러움이나 부지런함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 부가 이렇게 위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산을 부여받았다면 그는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만의 가난한 사람을 지닌 것이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과도 같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속해있는 것이라고 칼뱅은 본다.<sup>101)</sup>

칼뱅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차원으로까지 연결시켜 바라보았고, 가난한 자들을 볼보지 않는 것을 심지어 신성모독으로까지 보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자로 이해되며, 부는 분배되어야 하며, 가난한 자들을 가족과 같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 노동과 임금 이해와 사회적 약자들

칼뱅 당시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중세 교리에 따라 노동은 신앙과

---

101) R.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90-91.

영적 삶과는 상관없이 없는 세속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중세의 스콜라주의에 따라 노동의 의무는 자연윤리와 자연 질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칼뱅은 노동을 기독교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해 놓았으며 복음은 인간의 노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게 함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칼뱅은 인간의 노동에다 이전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영적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sup>102)</sup>

칼뱅은 하나님은 노동을 복된 것으로 보시는 반면, 게으름과 일하지 않는 것을 저주하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칼뱅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자신의 재원을 자기만 움켜쥌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경멸한다. 또한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화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을 하도록 정해 놓으셨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칼뱅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남용하거나 착취하는 것도 범죄행위로 간주하였다.

칼뱅은 제네바에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난민이 도착하면서 노동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게 되자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응했다. 그는 성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새롭게 적응하도록 돕는 것과 젊은 사람들의 직업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일자리를 당장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급 임시직을 부여했다. 그러나 모든 난민이 다 현재의 일자리에 고용될 수는 없었으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칼뱅은 의회를 통해서 직조산업을 개발하도록 하였고 구빈원으로 하여금 환자 이외에도 생계가 막연한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했으며 다른 유급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sup>103)</sup>

칼뱅은 임금을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칼뱅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금을 주셔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유로운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임금을 제공하신다고 본다. 즉, 하나님은 보상의 의무가 전혀 없는 데도 우리의 노동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다.

칼뱅은 부자들이 고용을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을 깎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은 비록 노동자의 임금을 체

---

102)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76-77.

103) 위의 책, 74-76.

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인하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칼뱅은 급료에 관해 자주 일어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임금 계약제와 같은 임금체계를 제안한다. 그는 나아가 단체계약까지 생각했으며 법정 중재역할도 추천하였다. 비록 칼뱅은 노동을 착취당한 자들이 불법적인 폭력에 의지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칼뱅은 하나님께는 종종 착취자들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불복종을 이용하신다고 보았다. 이처럼 칼뱅은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비폭력 저항과 파업을 반대하지 않는다.<sup>104)</sup>

실제로 칼뱅은 임금과 관련하여 직공들과 교사의 봉급을 올리기 위해 수차례나 공무원들을 찾아갔다. 그는 시의회가 목사들에게 가족 수당 급여를 가결했을 때 국가와 고아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노동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수에 따라 임금이 끌고루 지급되도록 감시하는 법령을 제정 공포하게 했다. 칼뱅 당시는 일반 생계비가 급등하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는데 때였는데 이로 인해 시골에서 때때로 무산계급이 소요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당시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형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 제네바 시의회는 1559년에 노동자들에 대한 최대임금을 정해주고는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박탈했는데 이러한 억압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샀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때에 제네바의 목사들은 노동자들과 고용주들 그리고 시당국간의 갈등상황에 개입하여 중재역할을 하기도 했다.

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칼뱅의 노력에 대해 비엘레는 칼뱅이 정당한 임금에 관해 논할 때면 언제나 다른 어떤 가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조명 아래서 출발했다고 본다.<sup>105)</sup>

칼뱅은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억압에 반대하는데, 특히 그는 노동자의 임금착취에 맹렬히 반대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품꾼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야고보 사도가 부연하는 것에 주목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는 그냥 지나쳐지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한 억압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

104) 위의 책, 77-80.

105) 위의 책, 80-82.



인내를 가지고 잘 참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피해 상처를 주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보호자이고 후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로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을 그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그의 심판이 더욱 무서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만군의 주로 부른다.<sup>106)</sup>

한편, 칼뱅의 경제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관이다. 노동은 하나님에 의해 기본적으로 위임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공동의 삶을 보존하시듯, 인간의 노동 역시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선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칼뱅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은 적합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타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칼뱅은 노동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라면, 인간에게서 노동을 빼앗는 일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인간의 정당한 수입과 생활품을 빼앗는 일은 인간의 목을 자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속하게 된다.

칼뱅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급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급료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라면 그것은 고용주에게 속하지 않으며, 노동자에게 정당하지 못한 급료나 또는 급료의 지불을 미루는 일은 신성모독에 속한다.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노동을 착취하고 그 피를 빨아먹는 것은 낫선 사람을 상해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다.<sup>107)</sup>

그들은 그들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노동을 요구하고 강탈함으로서 그들의 이웃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다. 여기에서 참으로 선지자는 한 종류의 불의를 언급한다. 그러나 권력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사악하게 다스렸는지 그것은 쉽게 결론 내려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과 궁궐을 짓는데 그들의 이웃을 마치 노예처럼 고용하며, 또한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의 열매를 빼앗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다. 참으로, 율법에 명한바 된 것처럼, 노동자의 임금은 체불되어서는 안되는데(레위기 19:13)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

106) *Comm on James* 5:4

107)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61-62.

도 같기 때문이다. 강도가 사람을 죽일 때에 그가 노리는 것은 노략물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그의 피를 팔아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별거벗고 궁핍하게 내어버린다. 바로 이것이 그를 죽이는 폭력보다 더 흉악한 것이다.<sup>108)</sup>

칼뱅이 이해했던 급료란 고용주나 노동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정당한 급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칼뱅은 인간의 이기심과 이해관계가 노동의 착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칼뱅은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폭력에 호소하는 소요를 불법적인 것으로 제한하지만, 때론 하나님은 노동자들의 불복종을 통해 착취자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칼뱅은 비폭력과 정당한 노동쟁의에 반대하지 않는다.<sup>109)</sup>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칼뱅은 노동탄압이 되는 근로조건은 정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타인의 노동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디모데전서 5:18의 말씀을 칼뱅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sup>110)</sup>

이것은 공평함과 인간애에 대한 정죄라는 정치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런 짐승들에게도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하물며 우리 동료인간들을 향해서는 친절이 더 요청되겠느냐는 말이다. 디모데전서의 저자의 의미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임금을 착취해서는 안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다.<sup>111)</sup>

칼뱅 당시 제네바에서는 임금제한에 대한 포고령이 발효되었고 시의회의 인세법을 원활하게 시행시키기 위해서 시의회는 보다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들을 얻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된 노동조합들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당시 유사한 상황가운데 있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 노동자들을 위한 세력단체의 결성이 있었는데,

---

108) *Comm on Jeremiah 22:13*.

109)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162-63.

110)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363.

111) *Comm on 1Timothy 5:18*.

제네바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함(W. Fred Graham)은 이것이 제네바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목사들의 강력한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sup>112)</sup>

목사들은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최고임금과 조합금지를 반대했다. 목사들은 노동자와 고용인이 함께하는 상업의 조직을 제안했는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빼앗는 일방적인 정부의 조치들,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1559년에 목사들의 발의로, 의회는 만장일치로 직업인들 대표와 함께, 인쇄업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이는 제네바의 처음 단체였다. 목사들의 관심과 인간성과 공정한 자선을 염두에 둔 자선이 많이 있었던 제네바는 리옹이나 파리에서 같은 시기에 소동되었던 과업을 피할 수 있었다.<sup>113)</sup> 이처럼 칼뱅과 제네바의 목사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관심을 지녔음을 보게 된다.

칼뱅은 노동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아무도 무시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업은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천벌과도 같은 것이며, 성서는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저주함을 상기시킨다.<sup>114)</sup>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의 일자리를 생각한다. 마치 부자가 부요하고, 공간이 풍성하고, 지하 저장실이 가득한 이것들을 보듯이... 또한 수입이나 유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그의 영혼과 마음은 그가 무엇을 벌 수 있느냐로 마음이 향한다. 다른 말로 “그래 내가 일했으니 적어도 오늘 먹을 양식은 적어도 있겠지, 그리고 다시 먹을 양식은 벌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이다....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발을 노략하거나 그의 초지를 약탈하거나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강도짓에 대해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손에 있는 일거리를 속여서 빼앗는 것은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의지할 다른 자원이나 유산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생계를 위해서는 그의 피까지라도 일자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sup>115)</sup>

이처럼 칼뱅은 노동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밀접히 연관시켰으며 임금을

---

112) W.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214-17.

113)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143.

114) 위의 책, 361.

115)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28, 188. *Sermon CXXXVII on Deuteronomy 24:14-18*,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361에서 재인용.

하나님의 선물로 파악했다. 그리고 노동의 착취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의 잔인성에 대해 경고 하고 있다.

### 3. 자본과 금융질서 이해와 사회적 약자들

칼뱅의 경제 이해의 특징적인 면 중 한 가지는 루터나 중세 신학자들과는 달리 그의 상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윤리적 평가에 있는데 칼뱅은 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긍정은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sup>116)</sup>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의 무역에 종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역에 비교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상호교환을 하고 상호교류를 계속하기 위해서 물물교환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상점들이 그에게 할당된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인데, 소명 그 자체는 적합한 행동을 하는 힘이고, 다른 은사들은 여러 종류의 상품들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사용과 목적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연적인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sup>117)</sup>

칼뱅의 이해에 의하면 상업의 목적은 상호간의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증진하고 교환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의 거룩한 목적에서 벗어나 사기와 부정직함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경제관계와 사회질서를 악화시킨다면, 상업 활동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최악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에 속한다. 칼뱅이 취하는 경제 질서의 모델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만나의 분배처럼, 소유하는 자는 지나치게 소유하지 않으며, 적게 갖는 자는 지나치게 적게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경제 질서에 있다.<sup>118)</sup>

고린도후서 8:15의 주석에서 칼뱅은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유산에 의해서 건 근면과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든, 그들의 풍요함이 무절제나 과도함으로 흐르지 않고 형제들의 필요를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을 고려해야한다”<sup>119)</sup>고

---

116)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163.

117) *Comm on Matthew 25:20*

118)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164-65.

119) *Comm on 2 Corinthians 8:15*

말한다. 이는 만나의 사건을 재해석한 것으로서 그가 이해한 경제 질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사유재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칼뱅은 사람들이 우호적이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상업 활동과 재산의 상속과 기부가 가능하며, 개인의 상업성, 활동성, 재능, 그 밖의 다른 수단을 통해 부유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정부가 개인이 자기에게 속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당시의 투기, 매점매석을 통해 상인들이 가격상승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왜곡된 경제 질서의 모습들에 대해 칼뱅은 이러한 투기와 매점매석은 오염된 경제 질서의 원형적 모습으로 보았다.<sup>120)</sup>

많은 사람들이 칼뱅이 이자 대부분을 자유롭게 허용한 첫 기독교 사상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유 자본주의의 전면적인 정당화가 그의 뜻이라고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칼뱅의 부에 대한 사상은 그로 하여금 이자 대부분을 엄격히 규제하게 만들었다. 비엘레는 칼뱅이 제한되지 않은 자유주의가 가져올 사회적 황폐함을 감지했다고 본다. 칼뱅은 당국으로 하여금 법적 이자율을 유지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5%로 고정했었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게 했다.<sup>121)</sup> 이것은 제네바에서의 이자대부의 즉각적인 발전과 칼뱅이 엄격히 반대했던 직업적 대부업자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었다. 칼뱅은 이러한 재정적 활동에 대해 호의적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만들 염려가 있는 행동들에는 반대했다. 즉, 칼뱅은 경제성장과 사회정의의 적합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했던 것이다.<sup>122)</sup>

비엘레는 칼뱅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돈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아주 새로우면서도 현실 적합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중세에는 스콜라주의의 영향으로 이자를 붙여 돈을 대부하는 것을 금지하여왔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많은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제네바에서도 종교개혁 이전에 이자를 붙인 대부가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뱅 당시 16세기 초 제네바의 경제생활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었고 금융대부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었다. 그 후 프로테스탄트 난민들의 유입과 활동으로 인해 제네바의 경제는 회복되었고 신용대출에 대

120)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84-85.

121)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147, 481.

122) 위의 책, 147.

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네바의 이자율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현실 속에서 칼뱅은 이자 대부에 관한 경제문제에 대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즉, 그는 성서에 기초를 두면서 동시에 성서의 기초를 실제적 경제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경제구조를 신중하게 분석했다. 칼뱅은 먼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현실에 대해 말해주는 성서의 내용에 주목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성서에서 고리대금과 그것의 모든 폐해를 비난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서는 우리의 이웃을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무이자 대부의 가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강조함에 주목했다.

즉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이자 대부, 즉 어려움이나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빌려 달라 간청하게 하고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아먹는 식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칼뱅은 이러한 성서의 이자 금지법을 모든 대부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칼뱅은 성서가 이자나 고리대금업을 말할 때 그것은 생산을 위한 자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다.<sup>123)</sup> 즉, 칼뱅은 성서의 맥락에서의 고리대금은 16세기의 정황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서시대의 관점에서 궁핍한 자들에게 빌려주는 대부금에는 이자를 붙여서는 안되지만 16세기 상황에서의 생산을 위한 대부에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고 그는 본다. 즉, 생산을 위해 대부를 해준 사람은 장사나 상업을 위한 사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124)</sup>

칼뱅은 돈은 다른 상품들처럼 생산성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모든 대금업을 다 금지해 버리면 사람들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진짜 고리대금업자와 더불어 정직한 대금업자까지도 다 거부해 버리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칼뱅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기에 합법성의 이름으로 대금업을 악용하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는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데 쓰여야 할 돈을 이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탐욕스러운 짓으로 비난한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

---

123)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87-89.

124) R.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87-89.

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본다.

비엘레는 비록 칼뱅이 이자대출 금지를 해제했지만 그런 해제가 대금업을 하는데 전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환기시킨다.<sup>125)</sup>

이자대부에 관한 칼뱅의 견해는 그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자신의 한 친구가 1545년 11월 7일 요청한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자대부에 관한 그의 의견을 말해준다.<sup>126)</sup> 칼뱅은 성서는 일반적으로 이자대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의 견해를 먼저 밝힌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는 느린,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성향으로 인해 인간의 자연적 경향을 정죄한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신명기 23:19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이자대부에 대한 반대의 견을 피력한다. 즉, 이자대부 금지는 시민사회에 대한 수단이며 그것의 남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칼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자대부가 도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가난과 곤궁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를 물어서는 안되고, 재난에 고통 받는 사람이나 가난으로 철저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속박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통한 이윤을 자선을 위한 돈을 제외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얻을 이익에만 너무 집착하여 필요로 하는 자선사업들에 태만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의 살펴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27)</sup>

칼뱅은 이자율은 공공의 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인의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이자율이 고려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자율은 지역의 법적인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죄악 된 세상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정해놓은 것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즉, 정의롭고 공정함의 여부는 세상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128)</sup>

125)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89-92.

126)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403.

127) 위의 책, 404-06.

제네바 시의회는 허용 가능한 이자율을 설정하려고 했지만 이자율을 더 높게 받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1541년 칼뱅이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시의회와 함께 이자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557년 12월에 이르러는 이자율은 일 년에 6.67%까지 상승했다.<sup>129)</sup>

칼뱅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고리대금과 합법적인 이자대부 사이를 구분하는 공식적인 규칙은 없다고 본다.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선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그는 에스겔 18장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가 붙어서는 안된다.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고 본다.<sup>130)</sup>

상업과 금융이해에 나타난 칼뱅의 사상은 성서적 가르침에 근간을 두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었다. 특히, 상업 활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이자대부 문제와 관련하여 칼뱅이 보여준 방식은 언뜻 보기에는 이중적인 태도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의 현실인식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이라는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칼뱅은 돈이 지닌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돈을 통한 인간탐욕이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신명기 24장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점을 잘 드러내준다. <sup>131)</sup>

채권자는 자신의 기쁨을 위한 담보를 잡기 위해 생활용품들 중에서 골라 잡거나 집을 샅샅이 뒤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만약 이 방법이 탐욕스런 부자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은 인정사정보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취할 것이고, 특히 가장 좋은 것을 취할 것인데, 가난한 자들의 가장 내부까지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혹은 달리해서 이것저것들을 경멸적으로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에

---

128)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10, 245. Letters to Claude de Sachin 1545, J. Dempsey Douglass,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79-80에서 재인용.

129)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Ethical Issues,’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67-68.

130)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407-15.

131) 위의 책, 417.



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수치로 채울 것이다.<sup>132)</sup>

그는 “이자를 받는 모든 행위는 예외 없이 비난 받아야한다”는 관습적인 견해를 문제 삼았지만 부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아무 문제없이 용납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확실히 이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혐오의 색채를 띠고 있다.

나는 그 문제는 오직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결과 만약 우리가 부자에 관한 것이라면 고리대금은 자유롭게 허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께서 한 가지에 대해 암시할 때에는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는 것 같으시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 채무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억압하는 이러한 경우에만 이자의 수탈이 부당한 것으로 비난되어야 한다. 참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으며, 이자라는 말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처럼 매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을 감히 말하고 싶지 않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자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정치적 상황의 일부였다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자를 받는 것이, 공평과 평제에 모순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라는 것임을 이를 통해 알게 된다.<sup>133)</sup>

칼뱅은 어느 누구도 직업으로서의 고리대금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편 15:5 주석에서 칼뱅은 고리대금에 대해 성서의 기본적인 반대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고리대금이 금지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칼뱅은 고리대금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부정적인데 그는 “고리대금과 관련하여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강탈하고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움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sup>134)</sup>

부스마(William J. Bouwsma)는 이자 대부의 허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의 칼뱅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태도는 부분적으로, 그가 다른 경우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양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의

---

132) *Comm on Deuteronomy* 24:6.

133) *Comm Exodus* 22:25.

134) *Comm on Psalms* 15:5.

노력의 결과였다고 본다. 그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장려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회피하고자 했다. 그는 부가 기독교인들의 삶에 전혀 위협하지 않다고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빈곤 그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기를 원했다.<sup>135)</sup>

칼뱅의 경제문제 이해에서는 당시 급변하던 노동과 상업, 금융과 경제 질서에 대한 현실적 관심으로 잘 드러난다. 부와 상업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부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다. 금융질서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자 대부를 허용했지만 그가 사실 강조한 것은 사랑과 상호책임의 행동으로서의 대부였다. 그는 모든 경제행위 속에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

135)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198.

## IV.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 A. 칼뱅시대의 사회복지와 칼뱅의 관심

#### 1. 칼뱅시대의 사회복지 사상

디아코니아(diakonia)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 또는 세상 안에서의 교회봉사를 의미한다.<sup>136)</sup> 초대교회 이래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말씀, 성만찬, 기도와 함께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leitourgia)는 이웃을 향한 봉사인 디아코니아와 직결되어 이해되어졌다.<sup>137)</sup>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을 자선과 구결이라는 두 가지 장치로 돌보았다. 이 둘 중에서 구결은 더 오래되었고 더 널리 퍼져있었다. 구결은 중세 유럽에서 인정된 삶의 방식이었는데 거지에게 자선행위를 하는 것은 신자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다.<sup>138)</sup> 중세의 공로적 경건은 가난에 대해 자발적 가난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실현시켰던 것이다.<sup>139)</sup>

중세시대에 도시의 발전과 빈곤은 영향이 있었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농촌 사람들은 도시를 피난처와 기회의 장소로 여겼다. 그것은 마치 앞선 세대에서 주인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도시에서 찾은 것과 같이, 이들 후대 세대는 도시

---

136) Elsie Anne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류태선, 정병준 역,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89.

137)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제6회 소망신학포럼자료집』 (2007. 4): 1.

138)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7, No. 2 (Nov 1982), 212-13.

139) Carter Lindberg,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 Welfare in the Early Reformation,” *Through the Eye of A Needle: Judeo-Christian Roots of Social Welfare*, ed. Emily Albu Hanawalt & Carter Lindberg (Kirksville: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ress, 1994), 177.

에서 가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이주로 인해 오히려 도시가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sup>140)</sup>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구걸을 택했으며 여러 도시에서 구걸은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나 부정한 돈벌이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이 구걸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부분의 유럽도시들은 구빈원(hospital)을 택하기에 이르렀다. 구빈원은 오늘날처럼 단지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능을 지닌 것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구호를 위한 모든 목적을 지닌 공공단체였다.<sup>141)</sup>

구빈원은 의료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순례자를 위한 숙박소, 고아, 늙고 가난한 사람, 연금수령자, 질병의 희생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이었다. 구빈원이란 용어는 16세기에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어떤 장소를 의미하거나, 한 곳에 집중된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가리킬 수도 있었다. 중세 교회의 자선조직은 14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 교구, 수도원, 구빈원 등이 다양한 유형의 빈곤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었다.<sup>142)</sup>

중세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교회와 그 신학은 가난한 자들의 복지에 있어서 비효율적이 되어갔고 때로 방해가 되기도 했다.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로부터 발생된 빈곤상태에 대해서 교회의 신학적, 윤리적 구조로는 대응할 수 없었다. 빈곤을 덕으로 이해한 신학이해는 빈곤과 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인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sup>143)</sup> 중세 교회와 봉건주의 권위에 대한 증대되는 도전들로 인해 지금까지의 오래된 안전수단들이 무너졌다. 유랑하는 소작농들의 집단과 군인들은 전례 없는 문제들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들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반면 지역사회의 기초를 놓았던 평신도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건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시 당국은 이들 평신도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이르러 빈민구호는 적어도 행정통차자가 교회와 공유하는 책임으

---

140) Carter Lindberg, *Beyond Charity: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39.

141)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12-13.

142)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Droz, 1984), 93-94.

143) Carter Lindberg, *Beyond Charity: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66-68.

로 여겨지게 되었다. 도시는 커다란 문제들과 직면했고 따라서 사회복지 개혁의 선구자가 되었다.<sup>144)</sup>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교회를 심하게 비난했던 점은 형식적 신학이나 교리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사회의 실제적 필요를 돌보는데 실패했던 교회의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중세에 존재했던 공동체 자선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제도 교회 안에 있거나 의존했다. 구제의 집, 여행자 숙소, 구빈원 그리고 인간의 필요나 고통에 대한 개선을 위한 기구들은 수녀원, 수도원, 성당이 연관되어져서 계획되고 촉진되고 설립되었다. 재정적인 기초는 공작의 기부, 부자의 유언, 사람들의 기부금들과 같이 교회 밖으로부터 온 것에 의존했다. 그러나 계획들의 수행을 위한 구조나 공동체의 자선은 성례적 기능이 지 통치자의 기능은 아니었고, 비교회적 공공단체가 아닌 교회의 책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많은 책임을 지니게 했다. 그러나 성직자들에 의해, 계층구조의 감독과 지도하에 원래 수행되던 이 모든 기능들은 종교개혁시기에 이르러, 자선사업들은 시정부의 대행자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행되거나, 시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무원들에 의해 직접 감독을 받게 되었다. 즉, 지역사회의 자선기구들은 실제적으로 세속화되었던 것이다.<sup>145)</sup>

16세기는 사실상 현대적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전환점과도 같은 시기였다.<sup>146)</sup> 16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도시들은 합법적인 구결과 구빈원을 통해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을 채웠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빈원식의 해결을 불만족스럽게 여겼다. 구빈원들은 서로 다르게 설립되고 운영되었고, 불만족스러운 대체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많은 구빈원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충분한 기부를 받지 못했고 다른 구빈원들은 기부금이 가난한 관리자들과 물가 상승 등에 의해 허비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구빈원이 모여 있었다.

16세기 사회복지법령들은 세부사항들은 다르지만 중요한 특징들은 일반적

---

144)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93-94.

145) R. W. Henderson, "Sixteenth Century Community Benevolence: An Attempt to Resacralize the Secular," *Church History* 38 (1969), 421-22.

146)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93.

으로 공통점이 있었다. 빈민구호 수단들은 개신교 교회종단에서는 공통적인 것이었고 가난한 자들과 부랑인들과 거지들의 문제에 대한 법령들이 있었다. 큰 특징들은 조직화(organization), 중앙화(centralization), 평신도화(laicization)였는데, 특히 구걸에 대한 금지 법령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령들은 복지를 중앙화했고, 상업에 의해 발전된 원리들에 입각해서 조직되었다. 그 운영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겨졌다. 대부분의 법령들은 가난한 자들의 돌봄과 관련하여 성직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부여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더 자선에 우호적이 되도록 특히 교회의 구호 모금함에 더 기여하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했다. 이러한 교회의 구호 모금함을 통한 수입이 구호를 위한 수입의 유일한 근원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빈민구호의 주요한 수단이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되기도 한다. 많은 곳에서 전통적인 자선의 방법들은 중앙화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노력이 상당했는데 반면 몇몇 정부들은 법적 세금에 의지하기도 했다.

부랑인들과 거지들에 대해서는 사회개혁으로서 이를 해결되기 전에 가톨릭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구걸이 구호와 함께 시행되었는데 개신교 지역에서는 구걸은 철저히 금지되고 오직 복지에 의해서 진행되었다.<sup>147)</sup> 루터의 비텐베르크에서는 교구 구빈원과 구빈원을 위한 기금이 있었고 기금의 관리는 시 당국에 의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원칙에 의해 사용되었다. 또한 이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저리의 대출, 지참금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부처의 슈트라스부르크에서도 더 낮은 삶을 찾아 유입된 소작농들과 가난한 자, 여인들에 대한 돌봄이 있었다.<sup>148)</sup>

이처럼 칼뱅시대의 사회복지는 자선과 선행에 대한 중세적 개념의 거부 내지는 새로운 이해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평신도화와 합리화라는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개념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

147)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94-96.

148) Rebecca B. Prichard,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o Cared?," *Encounter* Vol. 54, No. 4 (Autumn 1994), 359-69.

##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칼뱅의 관심

제네바는 종교개혁과 함께 1535년 새로운 복지제도를 정립했다. 종합구빈원이라는 다목적의 시 복지기구였다. 시의회는 이를 위한 건물이 필요했는데, 제네바의 성 클레르(Clares) 수녀회의 건물을 사용했다.<sup>149)</sup> 제네바에는 칼뱅이 들어 오기 전인 1535년에 이미 종합구빈원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종합구빈원의 설립목적은 환자, 가난한 자, 고아와 노인을 돌보는 것이었다. 칼뱅은 초대교회의 모델에 근거하여 제네바 교회공동체의 물질적인 삶을 다시 재정비했다. 그는 그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실제적인 일들에 있어서 집사들의 사역을 적용하였다. 칼뱅은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후인 1541년 교회법령을 세우고 특히 집사직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과 물질적인 삶은 아주 밀접해서 집사의 사회적 봉사는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과도 같이 여겨졌다.<sup>150)</sup>

칼뱅이 이해한 집사직이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집사직을 통해 교회와 국가가 상호협력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과업을 실현해 나갔다는 점이다. 칼뱅은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상호부조를 교회와 시민사회의 단체적 의무로 보았다. 그 결과 칼뱅과 제네바 교회는 제네바의 거주민들, 병자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유아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제네바 구빈원에 모인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있고 또는 집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sup>151)</sup>

제네바의 교회와 사회의 개혁은 칼뱅 보다 앞서 일어났었다.<sup>152)</sup> 칼뱅을 통해 세속적인 시정부의 주요역할이었던 자선기능의 수행은 교회의 공적 사역으로서 섬기는 자들이 세워짐으로써 다시 교회의 영역 안으로 회복되었다.<sup>153)</sup> 칼뱅은

---

149) Jeannine E. Olson, "Social Welfare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ty in Geneva," *The Identity of Geneva*, ed. John B. Roney and Martin I. Klauber (Wesport: Greenwood Press, 1998), 155-65.

150)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20.

151) André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Geneva: WCC Publications, 2005), 134-36.

152) Rebecca B. Prichard,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o Cared?," 370-73.

로마 가톨릭의 자선 구조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목사회와 함께 제네바 시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함께 책임져나갔다. 그의 접근방법은 아주 행정적이고 법적이였다.<sup>154)</sup>

종합구빈원은 본래 제네바 시안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빈곤의 경감을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제네바를 방문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1~3일 정도의 숙소의 제공은 있었지만 제네바의 비거주자들을 위한 복지관련 사항은 거의 전무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은 그의 고향에서 돌봄을 받아야 했고, 다른 부유한 지역에서는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했다. 특별히, 기근의 때에 굶주리는 소작농이 식량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찾아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sup>155)</sup>

제네바의 종합구빈원에 대한 칼뱅의 영향력은 간접적이었지만 상당한 것이었다. 특별히, 이중 집사직은 교회의 사회적 영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칼뱅의 관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sup>156)</sup> 이웃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관련, 칼뱅은 교회의 임원들과 시 관리들이 시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이해했다. 이 둘 사이의 명확한 관계는 분명히 서술하기는 어렵지만, 컨시스토리(consistory)와 목사들은 시의회가 많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했고, 반면 시의회는 도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목사들의 도움을 종종 요청했다. 이런 개혁의 과정에서 시의회는 칼뱅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영역에 대한 권위를 계속 행사했다.

교회의 관리자들인 집사들의 역할은 공공복지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시 공무원들의 과업과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지녔는데, 이는 개인적 자선이 아닌 제도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에 관여되어 있었다. 집사들의 주된 책임은 여행자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들이 있는 구빈원을 감독하는 것이었으며, 몇몇 집사들은 구빈원에서

---

153) R. W. Henderson, "Sixteenth Century Community Benevolence: An Attempt to Resacralize the Secular," 428.

154) Rebecca B. Prichard,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o Cared?," 370-73.

155)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21-22.

156)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113.



의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았고, 다른 이들은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맡았다.

1544년에는 칼뱅이 구빈원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시의회에 문제를 제기한 후 행정관이 즉시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칼뱅은 시의회로부터 일자리가 필요했던 구빈원의 사람들을 위한 직류사업의 조직을 도와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또한 칼뱅은 교회와 정부가 가난한자들과 노인들, 여행자와 피난민들에 대한 돌봄, 공정한 임금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안들과 같은 사회복지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sup>157)</sup>

제네바로 많은 난민들이 유입된 후 제네바의 사회복지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많은 수의 피난민들은 가난했고, 돌봄이 필요했고, 도시는 그들을 돕기에 압박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도시의 준비는 유입되는 외국인민들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것이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e)이다. 프랑스 기금은 가난한 자들과 능력이 없는 피난민들을 위해 정기적인 배급을 주었고, 실직자에게는 직업과 기술을 비롯해 의복과 침구에서부터 창업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들을 위해 봉사를 했다.

하지만 프랑스 기금의 이러한 모든 역할에도 불구하고 기금활동을 위한 별도의 건물 같은 것은 없었고 교회 집사들의 집이 그 기능을 했다. 집사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도시 내의 숙박시설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 몸이 아픈 피난민들 위한 숙소를 제공했으며 환자들을 위해 돌보는 사람도 고용하기도 했다.<sup>158)</sup> 집사들은 지역교회의 기금도 다루었고 가난한 자들도 돌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톨릭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피난 오는 개혁교회의 종교적 피난민들을 돕는 집사들의 기금의 상호 연결망이 형성되었다.<sup>159)</sup>

이처럼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칼뱅의 관심은 중세의 자선과 복지이해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당시의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교회의 집사직의 회복을 통하

---

157) Douglass J. Dempsey,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Church & Society* Vol. 74 (March/April 1984), 75-78.

158) Jeannine E. Olson, "Social Welfare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ty in Geneva," *The Identity of Geneva*, 155-65.

159)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Ethical Issues."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67.

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교회의 책무를 정부와의 독특한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었다. 칼뱅이 보여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이른바 성스러움과 세속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녹아들어서 가는 방식<sup>160)</sup>이었다.

## B. 이중집사 제도와 칼뱅의 관심

### 1. 집사 제도에 대한 칼뱅의 이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집사(deacon)라는 명칭을 예전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섬기는 직무의 의미에서만 이해했다. 즉, 사회를 향한 교회의 디아코니아의 책무를 어떤 특정한 직무에만 부여하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디아코니아의 실천에 있어서 특별히 집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칼뱅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다루는 방법은 교부들의 시대와는 많이 달랐다. 칼뱅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집사직의 모든 목적이 소홀히 여겨졌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나열한 이 모든 고대의 관습들은 방해받거나 완전히 없애지거나 숨겨졌다”고 탄식한다.<sup>161)</sup>

이러한 칼뱅의 가톨릭 교회의 집사직에 대한 비판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그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집사직을 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집사는 교회 자산을 관리하고 기금을 모집하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했고, 두 번째 유형의 집사는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과 고아들을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sup>162)</sup>

---

160) Rebecca B. Prichard,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o Cared?,” 370-73.

16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5, 16.

162) Hans Scholl,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rmed Tradition,” *Ecumenical Review* Vol. 32 (1980), 247-49.

이처럼 칼뱅은 교회의 공홀사역으로서 집사직의 부활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기독교인의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나갔다. 칼뱅은 신약성서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조직체계로서의 집사직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환자를 돌보고 육체적 곤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특별한 과업을 지닌다고 보았다.<sup>163)</sup>

칼뱅은 『기독교강요』 제4권에서 집사를 개혁교회에서 영구적이고 필요한 직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는 집사직의 두 기능과 그것의 성취를 위한 집사직의 두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로마서에 의하면 두 종류가 언급되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공홀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8) 바울이 이 말씀에서 교회의 공식 직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거기에는 분명한 두 등급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구제금을 나눠주는 집사이고, 둘째는,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돌보는데 헌신된 집사들이다.

이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5:9-10에서 언급하는 그런 과부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인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만 교회내의 공식 직임을 맡을 수 있다. 이로 보건대 두 종류의 집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관리하는데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나 ‘디아코니아’ 라는 단어가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하더라도, 성서는 집사에 대해 교회가 구제를 담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봉사를 위해 임명한 자들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sup>164)</sup>

칼뱅은 집사의 기원과 조직과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사의 기원, 조직, 직무는 사도행전 6:3에 설명되어 있다. 헬라인들이 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은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식탁에서의 봉사를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대면서, 이 직무를 맡길 일곱 사람을 선출하도록 한다.(행6:1이하) 이것이 사도적 교회에 존재했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집사인 것이다.<sup>165)</sup>

이와 함께 칼뱅은 1541년 『제네바 교회법령』의 제정을 통해 교회내의

---

163) J.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207.

164) *Institutes*, IV, 3, 9.

165) *Institutes*, IV, 3, 9.

네 가지 사역적 직임에 대해 구분했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 직임인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직임이었다. 그리고 칼뱅은 제네바에 적용된 사회복지개혁과 관련하여 이 네 번째 직임인 집사에 주목한다.

교회법령은 집사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정을 다루는 집사의 역할과 실제적으로 구제와 돌봄을 담당하는 집사의 역할을 구분한다. 그는 이러한 집사직의 이중적 이해를 통해 구빈원의 행정관들을 이 첫 번째 유형의 직임을 맡은 집사들로 이해했다. 그리고 구빈원장과 그의 직원들을 두 번째 유형의 집사들로 이해했던 것이다.<sup>166)</sup>

맥키(Elsie A. McKee)는 제네바 시의 구호담당 공무원들은 실제로 교회의 집사로서 인정되었고, 시 당국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들의 우선적 지위는 교회의 교역자였다고 본다. 즉, 칼뱅주의의 집사들은 신학적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을 위한 교회의 교역자였다고 이해되었다.<sup>167)</sup> 칼뱅은 집사직무가 재정의 모금과 관리 그리고 물질적 필요를 돌보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돌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고 보았다. 칼뱅은 이러한 기능을 봉사인력의 두 종류 즉, 관리자와 보살피는 자, 혹은 남자와 여자의 사역으로 구분했다. 남자 집사들은 여성보다 우위에 있고 안수를 받았으며 주로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나이든 과부가 여자 집사로 선출되었다.<sup>168)</sup>

칼뱅의 이러한 두 종류의 집사직무에 대한 개념이해는 발전과정을 거쳤다. 칼뱅은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집사직무의 근거가 되는 두 개의 성서본문으로 사도행전 6:1-6과 디모데전서 3:8-13을 인용했다. 칼뱅이 선택한 이 본문들은 교회사의 전통을 따른 것이었다. 두 본문에서 집사라는 명칭은 두 번째 본문에서만 나타난다. 최소한 1세기 말부터 구제를 위해 임명된 일곱 사람이 집사로 이해되었으며, 교회가 집사직을 위한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의 직임은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중세교회는 그것을 분명하게 예배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16세기의 개신교회에서

166)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20-21.

167) Elsie Anne McKee,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10.

168) 위의 책, 111-13.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을 집사직무에 관한 구절로 이해한 것은 중세와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전통과 달리 그들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일곱 집사의 역할은 빈민구제가 주된 것이었고, 단지 교회내의 예배에서 목사를 돕기 위해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개신교인들은 바울이 설명하지 못한 집사의 임무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행전 6장을 언급했다. 즉, 대부분의 개신교 성서주석가는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의 집사직분을 초대교회 속에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이었던 빈민구제를 위한 직제로 해석했다.<sup>169)</sup>

칼뱅의 사도행전 6장의 집사에 관한 주석에서 칼뱅은 집사직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가톨릭의 집사에 대한 오해를 날카롭게 비평한다.

우리는 이제 집사들이 만들어진 목적을 확신하게 된다. 집사라는 용어는 분명히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청지기들을 위해 적합하게 채택된 것이다. 교황주의자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놀렸는지 이제는 명확하다. 그들이 그들의 집사에게 부여한 유일한 직무는 성만찬용 집시나 잔을 다루는 것뿐이다. 그들이 사도들과 어떤 공동점이나 일치점을 가질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오랜 논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만약 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기독교강요』(IV,3,9)를 살펴보면 분명해질 것이다.<sup>170)</sup>

칼뱅은 빈민에 대한 집사의 교역은 분명히 교회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장로의 교역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집사는 교회의 교역자이고, 목사의 종이 아니라고 말한다.

집사직무에 대해 다른 해석이 우리의 의심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 사도바울은 교회의 거룩한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집사를 집안의 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반박한다.<sup>171)</sup>

---

169) 위의 책 114-18.

170) *Comm on Acts* 6:3.

171) *Comm on 1 Timothy* 3:7.

이처럼 칼뱅에게 있어서,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를 돌보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위한 교회의 직제는 필수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sup>172)</sup>

칼뱅의 집사직 이해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16장 1-2절의 말씀이다. 본문에는 뵈뵈라는 여인이 ‘집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녀의 봉사는 사도행전에서 일곱 집사에게 부여된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디아코니아의 한 형태라고 보여 진다. 칼뱅은 뵈뵈의 공적인 봉사를 인정하면서 그녀의 집사신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디모데전서 5장에서 논의되는 참 과부의 봉사를 언급한다.

이런 관점에서 맥키는 칼뱅이 뵈뵈와 과부를 성도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친히 봉사를 행할 책임을 지닌 집사들로 연결하여 생각 함으로써 로마서 16장과 디모데전서 5장사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다.<sup>173)</sup>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봉사의 성격은 디모데전서 5:10에서도 설명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공적인 재정적 도움을 받았고,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의해 돌봄을 받았다. 이러한 종교적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과부들이 선택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부들은 가정의 일에서 자유로웠고, 자녀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중으로 고용된 사람이 자유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sup>174)</sup>

이처럼 칼뱅은 뵈뵈와 과부들을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친히 돌보는 책임을 지닌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집사들의 하나로 이해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여성들이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맥키는 칼뱅이 이것을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이중집사직무에 관해 설명함으로 해결했다고 본다.<sup>175)</sup>

바울이 이곳에서 언급하는 구제하는 자는,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

172) Elsie Anne McKee,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18-21.

173) 위의 책, 122-24.

174) *Comm on Romans*, 16:1.

175) Elsie Anne McKee,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124-28.

사람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재정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은 집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술적으로 공홀을 베푸는 자를 말할 때, 그는 고대교회의 관습을 따라 환자를 돕도록 임명된 과부들과 다른 봉사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기능과 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었다.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단순성을 강조했다. 후자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가끔 그랬던 것처럼 불편한 태도로 봉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기를 원했다.<sup>176)</sup>

이처럼, 이중집사 제도를 통해 칼뱅과 제네바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성서의 분명한 정신에 따라 효율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 2. 이중집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들

올슨(Jeannie E. Olson)은 칼뱅은 이중 집사직에 대한 구상 즉, 집사직의 분할을 성서의 선례와 고대 교회와 경험, 특히, 바젤과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경험들로부터 얻었을 것이라고 본다. 제네바의 이중 집사직 구조는 칼뱅의 교회구조에 대한 아이디어가 신학적 추상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의 사상은 제네바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고 어느 정도 상황에 부합했다. 집사직은 교회법령에 나온 대로 칼뱅 이전부터 이미 세워진 제네바 종합구빈원의 관리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칼뱅이 두 종류의 집사를 언급할 때에 그는 이미 제네바에 존재하는 두 직임이었던 행정관과 구빈원장을 언급한 것이다. 말하자면 칼뱅은 이 직임에 집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빈원은 여전히 시의회에 의지하는 기구로 남아있었다.

1541년 교회법령이 작성된 몇 년 후, 이른바 프랑스 기금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종합구빈원 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제도였다. 프랑스 기금의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도 칼뱅의 이중집사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16세기 제네바 집사들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sup>177)</sup> 기금을 맡은 제네바의 집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다양하

176) *Comm on Romans*, 12:8.

177) Jeannine E. Olson, "Calvin and the Diaconate," *Liturgy* 2 (1982), 242-44.

게 기금을 사용했다.

이러한 칼뱅의 이중집사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논의가 발전되어 왔다. 하나는 사회사적, 또는 제도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적, 혹은 신학적인 것인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킹던(Robert M. Kingdon)은 사회사적 설명을 해왔고, 맥키(Elsie Anne. McKee)는 성서적 설명을 해오고 있다.

우선 킹던의 사회사적 관점의 내용의 요점은 종합구빈원은 이미 칼뱅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인 1535년에 이미 존재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칼뱅 이전부터 이중 집사직이 사실상 실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칼뱅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종합구빈원은 칼뱅의 이중 집사직 이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sup>178)</sup>

킹던은 결론적으로, 명확한 해답은 얻을 수 없지만 『기독교강요』의 최종판에서 볼 수 있듯이 칼뱅은 이중 집사직에 대하여 성서에 그 근거를 호소했음을 상기시킨다. 비록 칼뱅의 이중 집사직에 대한 생각이 근원적으로 성공적인 제네바에서의 수행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었지만, 칼뱅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사상의 뿌리를 두면서 성서에 호소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79)</sup>

반면, 맥키는 이중 집사직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제네바의 복지제도나 제네바 난민기금들의 실행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독교강요』에서 두 종류의 집사의 의무가 로마서 12:8과 함께 계속 나뉘어왔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80)</sup> 그는 칼뱅의 교회 직분이해에 있어서 로마서 12:8, 즉 이중집사직의 자리는 사회적 영향의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이 구절을 이중 집사직의 근거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나누어 주는 자의 기능과,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비의 행동은 전통적으로 진정한 자선의 두 종류로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맥키는 이중집사직의 이해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이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적어도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 상호관계가 성서주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sup>181)</sup>

---

178) 위의 책, 171-80.

179) 위의 책, 171-180.

180) Elsie Anne McKee, "Calvin's Exegesis of Roman 12:8 - Social, Accidental, or Theological?"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3, No. 1 (1988), 14-18

181)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이중 집사직에 대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논의들은 상호 절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칼뱅은 분명 칼뱅이 제네바의 종합구빈원의 봉사체계 속에서 이중 집사직을 바라보았고 연계함과 동시에 성서연구를 통한 이중 집사직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기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이중 집사직의 이해와 현실 적용은 철저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신약성서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칼뱅의 집사직 이해는 교회 구조 속에서의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의 사회·경제 현실 속에서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기금 속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섬기는 역할과 모습을 통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천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달리 말해 칼뱅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집사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평신도들의 중요한 직무로 삼음으로써 조직화된 자선과 복지를 성서에 근거한 영적인 사역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sup>182)</sup>

## C. 종합구빈원과 칼뱅의 관심

### 1. 종합구빈원의 기원과 발전

16세기에 이르러 몇몇 서유럽 정부는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시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이 복지개혁들에는 합리화(rationalization)와 평신도화(lacization)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었다. 기존의 수많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던 기구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로 대체했으며, 사회복지의 관리를 평신도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러한 사회복지개혁의 합리화와 평신도화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확산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sup>183)</sup>

185-204.

182)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22.

183)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6, No. 1 (Feb 1971), 50-51.

종교개혁 이전의 제네바의 사회복지는 합리화와 평신도화라는 이 일반적 방식을 따랐다. 13세기 후반과 15세기 중반사이에 제네바에는 일곱 개의 구빈원이 설립되었다. 이들 중 두 곳은 교회에서, 두 곳은 시의회에서, 두 곳은 평신도 종교자선단체,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부유한 가문에 의해 설립되었다. 각각의 구빈원은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었고 교구사제 혹은 구빈원장의 도움을 받는 행정관이 관리했다. 일곱 개의 구빈원들 중 다섯 곳의 구빈원의 행정관은 성직자였고, 여섯 번째 구빈원의 행정관은 평신도 수도원장이었고, 일곱 번째 구빈원의 행정관은 시정부의 일원이었다. 구빈원의 원장들은 모두 평신도들이었고 시정부의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었다.<sup>184)</sup>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제네바의 변화들은 사회복지 관리의 변화와 공백을 발생시켰다. 개신교화 된 정부당국은 기존의 일곱 곳의 구빈원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고 관련된 자산들도 처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하나의 새로운 기구로서 종합구빈원(General Hospital)을 만들었다.<sup>185)</sup> 종합구빈원은 오늘날의 용어개념에서의 병원이상의 것으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 도움을 베푸는 다목적 기구였다. 종합구빈원의 건물은 제네바의 중심에 있었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거주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고아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이었고 약간은 고령이거나 아픈 자들 혹은 자신을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신체장애자들이었다. 종합 구빈원은 제네바 거주자들의 가난한 가정들에게 매주 빵을 제공했고, 제네바에 방금 도착한 방문자들이나 숙소를 마련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저녁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다. 사실 종합구빈원은 종교개혁의 산물이었지만 칼뱅의 창작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종합구빈원은 1535년 제네바가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개신교 정권을 수립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설립되었는데 그때는 칼뱅은 아직 제네바에 오직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종합구빈원은 후대에 칼뱅을 초대하여 그의 종교개혁을 보호해준 경건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제네바 공동체는 1522년부터의 당시 복지개혁의 특징적 원리였던 합리화와 평신도화를 따랐다.

---

184)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15-16.

185) 위의 책, 217-18.

종합구빈원은 수많은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기구들을 하나의 합리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로서 대체했다. 그리고 이 기구의 관리는 시정부를 다스리던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인그룹들로 구성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1535년에 이미 도시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어도 여덟 개의 기구들이 있었다. 그것들 중 일곱 곳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빈원이라고 불렸고, 여덟 번째의 것은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모금함’(Pyssis Omnium Animarum Purgatorii)이라고 불렸다.<sup>186)</sup>

구빈원의 기원과 관련, 첫 번째로 세워진 구빈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나머지 구빈원들은 가난한 자들을 복지와 그들의 영혼의 안식에 관심이 있는 부자들의 기증이나 유산증여에 의한 재정후원으로 세워졌다. 각 구빈원의 실제적인 관리는 관리 주체들에 의해 지명된 원장이나 행정관이 맡았다.

행정관들은 구빈원장에 의해 도움을 받는데 구빈원장은 남자, 여자, 혹은 부부였는데 가난한 자들의 실제적 돌봄을 감독했다. 구빈원장은 언제나 시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감독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평신도들이었다.<sup>187)</sup>

그 후, 평신도화와 합리화를 향한 결정적인 조치들은 종교개혁기간에 취해졌다. 연옥에 대해 관심이 있던 평신도단체들과 기구들은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의해 신뢰와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구빈원 중에서 다섯 곳을 다스리는 모든 사제들은 제네바를 떠났다. 시의회는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급격한 조치를 취했는데 일곱 곳의 모든 구빈원들과 영혼들을 위한 모금함들이 폐지되었다. 이 기구들의 자산들은 새로운 종합구빈원에 넘겨졌으며, 관리는 완전히 평신도들에게 넘어갔다. 전임 구빈원장이 고용되었고 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본부 건물로 이사를 왔는데, 구빈원장에게 제공되는 것들로 인해 그 자리는 인기 있는 자리로 여겨졌다.<sup>188)</sup>

대부분의 행정관들은 상인들이었으며, 도시의 유력인사들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정부의 상설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었으며, 컨시스토리(consistory)의 장로들인 경우가 많았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와 종합구빈원은 모두 상설 기관으로서, 전자는 제네바의 신앙과 도덕을 유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였고, 후자는

186)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52-53.

187) 위의 책, 54-55.

188) 위의 책, 55-56.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기능을 담당하였다.<sup>189)</sup>

구빈원의 행정관들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기꺼이 해야 할 일로 여겼다. 그들의 가장 항구적인 의무는 매 주일아침 6시의 모임이었는데 설교 전에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행정관은 한주간의 구빈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특별한 경비지출을 위한 구빈원장의 제안에 대해 결정하고 한 주간의 빵 배급과 관련한 모든 가난한 가정들의 청원에 대해 결정한다. 행정관들은 특별한 의무들을 지녔는데 그들은 우선 구빈원에 할당된 모든 자산들을 관리해야 했다. 그 밖의 특별한 임무들은 구빈원 운영과 관련된 임대료 징수 및 대부, 유산기증 계약, 도제계약, 결혼 지참금 지원, 소의회에 대한 회계보고, 직원추천, 규정입안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구빈원의 행정관들은 그런데 이 일들 뿐만 아니라 바쁜 사람들로써 그들은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으며 도시의 통치 선발자들로서 정부의 의무들을 지닌 사람들이었다.<sup>190)</sup>

이처럼 제네바의 종합구빈원은 평신도화와 합리화라는 흐름 속에서 세워진 것으로서 칼뱅의 창작은 아니었다. 그러나 종합구빈원은 칼뱅의 집사직에 대한 이해와 디아코니아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제네바 교회의 성별된 사역의 일환으로서 독특한 방식으로 국가와 교회의 상호질서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종합구빈원과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 관한 제네바 교회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은 1541년 입안된 『교회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 가운데 교회행정의 네 번째 직분인

---

189)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제6회 소망신학포럼자료집』 (2007. 4): 12.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칼뱅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로 귀환한 1541년에 설립된 일종의 제네바의 치리법원으로서 12명의 평신도와 12명의 목회자로 구성되었다. 12명의 평신도는 시의회(소의회와 의회)에서 선출되었고, 12명의 목회자는 제네바 시의 목사들이었다. 컨시스토리는 행정장관 중 한 사람이 의장을 맡았으며,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모였다. 컨시스토리는 단지 재판소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목회상담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던 기구였다. 박경수, 위의 책 12.

190)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56-58.

집사들을 다루었던 부분의 발췌된 조항들이다.

고대교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직분이 있었다. 한 직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상적인 자선뿐만 아니라 재산과 임대료와 부조금도 받고, 분배하며 물건을 보존하는 직무를 위임받은 직분이다. 다른 하나는 병자들을 돌보고 간호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관리하는 직무를 위임받은 직분이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행정관(procureurs)과 구빈원장(hospitallers)이 있기 때문에 이 관습을 다시 따른다.

공립구빈원이 잘 유지되며 또한 이 기관이 일할 수 없는 병자와 노인, 과부, 고아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지런히 보살피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될 것이다. 병자들은 노인이나 과부, 고아와 여타의 가난한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격리된 방에서 항상 기거해야 될 것이다. 그 외에 도시 전체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도록 하라. 왜냐하면 집사들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자선이 걸맞는 어떤 공인된 기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이 하나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사업을 위하여 예비 되어야 할 것이다.

구빈원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시에서 개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구빈원을 돌보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사와 외과의를 시의 경비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191)</sup>

이상의 교회법령의 내용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칼뱅은 종합구빈원의 행정관과 구빈원장을 성서에 나오는 이중집사직과 연계하여서 이해하였고, 그것은 칼뱅이 세속화된 사회복지의 영역을 다시금 교회의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면서 복지에 있어서 국가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려는 그의 독특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구빈원의 돌봄의 대상인 병자와 노인,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명시는 성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칼뱅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종합구빈원은 ‘성령의 구빈원’으로도 불렸는데, 이곳은 병자들, 노인들, 과부들, 고아들

---

191) J. K. S. Leid, Vol. 22 *Calvin: Theological Treatis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64-66,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44-46에서 재인용.

그리고 호구지책이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의 항구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교회 규례집에 명시되어 있다.<sup>192)</sup>

종합구빈원의 관리를 맡은 구빈원장의 자리는 일반적으로 상인들, 은퇴 후 사역을 원하는 상인들이 주로 맡았다. 특별히 구빈원장의 부인에게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는데 구빈원장과 그의 아내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관장했다. 구빈원장과 그의 부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했으며, 매주일 빵을 구웠고 주일에는 남은 빵을 가난한 자들의 가족에게 구빈원 앞에서 배분해 주었다. 구빈원장과 부인은 발일 종사자들을 감독하고, 빵을 만드는 일과 빵을 굽는 자들을 감독하고 건물을 관리 하녀들을 감독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행정 관리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구빈원장은 보조자를 두었는데, 그 중에는 구빈원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은 하는 목사가 될 것을 준비하는 신학생도 있었다. 또한 외과 의사를 겸하던 이발사와 약사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숙련되지 않은 보조자들도 꽤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구빈원에서 자라난 어느 정도의 나이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어린이들,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은 돌봄을 받기에는 나이가 들었고 밖에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성인들 중에는 맹인이나 불구자, 노인의 경우에는 사후유산 기탁을 하고 구빈원으로 들어왔다.<sup>193)</sup>

킹던(Robert M. Kingdon)은 칼뱅이 종합구빈원과 같은 제네바의 사회복지 기구의 설립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통합자로서의 공헌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칼뱅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혁들을 신성하게 만드는 역할에 기여했다고 본다. 즉, 칼뱅은 제네바 시민들로 하여금 이 기구들이 거룩한 창조물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칼뱅의 역할은 이 기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지니지 못했을 활력과 지속성을 주었던 것이다.<sup>194)</sup>

집사직과 구빈원과 관련하여 칼뱅의 『기독교강요』에는 집사직에 관해 다루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저작들에서 추가적인 언급들이 있는데 그의 신약주석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진술들은 칼뱅이 집사직은 가난한 자들을

192) W.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149-50.

193)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18-19.

194) 위의 책, 219-21.

구제하는 일에만 헌신된 평신도 사역이어야 함을 느꼈음을 보여준다. 이 제도의 기원은 바울서신들과 사도행전 본문의 해석을 통해 설명된다.

칼뱅은 종종 이 집사직의 정의를 로마 가톨릭이 타락시킨 것으로 결부시키는데 집사를 보조 사제와 제의적이고 자선적인 의무를 줌으로써 그들을 분산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사회를 향한 자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킨다고 보았다. 집사직에 관한 그의 정의를 발전시키면서 칼뱅은 열쇠가 되는 성서의 증거본문들은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집사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본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을 모집하는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그 구제금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킹던은 칼뱅이 이러한 차이를 발전시켜 나갈 때에 제네바 사람들이 정립한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사회적 현상이 그의 집사직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돕게 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것들에 관한 언급들은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킹던은 제네바의 기독교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의무를 위해 제도화하는 법을 결정할 때에 칼뱅이 제네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네바가 칼뱅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합구빈원의 후대의 발전에 있어서 칼뱅의 역할은 심오한 것이지만 아주 간접적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칼뱅은 이 조직을 만들거나 구체적으로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칼뱅은 이 제도를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즉, 행정관과 구빈원장을 집사로 세움으로써 칼뱅은 그들을 기독교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로 만들었다.<sup>195)</sup> 그 결과 제네바의 평신도 구빈원장들은 1541년의 교회법령에서 집사들로 인식되었다. 칼뱅은 행정관들이 교회 사무원들에 대한 최종적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모든 행정관들이 목회의 도덕적 권위에 존경의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기대했다.<sup>196)</sup>

제네바에서의 이러한 종합구빈원을 통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개혁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했지만 구체적인 구제정책에 있어서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즉, 제네바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과거와 보다 철저하게 결별하였고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

---

195)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60-61.

196) Abel A. Alves, "The Christian Social Organism and Social Welfare: The Case of Vives, Calvin and Loyola,"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0, No. 1 (1989), 9.

하였다. 또한 제네바처럼 구제사역이 철저하게 평신도에게 맡겨진 곳도 없었다<sup>197)</sup>

이처럼 칼뱅은 종합구빈원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교회법령과 집사직을 통해 그는 구빈원의 사회봉사 기능들을 교회의 영역 안에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D. 프랑스 기금과 칼뱅의 관심

### 1.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e)의 기원과 발전

16세기 수많은 종교적 난민들의 유입은 제네바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많은 가톨릭교도들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에서 쫓겨나 오거나, 여러 지역의 많은 개신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제네바로의 종교적 난민들의 유입에는 칼뱅의 설교가 주었던 매력과 모델이 되는 공동체로 인한 요인도 있었다.

칼뱅 당시의 개신교 피난민들의 대량 유입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당시 제네바의 좁은 도시 공간 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복잡해졌다. 열악한 가옥구조들과 미비된 수도시설가운데 한 가족이 한 방에 살면서 위생시설도 불충분하였는데 이는 전염병의 발생까지 우려할 상황이었다.

계속 유입되는 난민들은 제네바 본토민들과 공간과 음식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기도 했다. 제네바로의 많은 난민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난민들 중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장사를 위한 도구가 없었던 사람, 사건이나 병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가족들도 있었다. 기존의 제네바의 종합구빈원과 같은 복지기구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대처할 수 없었다.<sup>198)</sup>

---

197)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12.

198)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23-24.



사실, 종합구빈원의 프로그램들은 제네바 원주민들의 문제만을 위한 것이었고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자들을 위한 정도의 단기간의 것이었다. 따라서 제네바에 장기간 또는 영구히 머무르려는 이들 피난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준비는 되지 못했다.<sup>199)</sup> 이에 따라 난민의 유입에 의한 강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즉 가난한 프랑스 인들을 위한 기금, 간단히 말하면 ‘프랑스 기금’이 만들어졌다.<sup>200)</sup>

프랑스 기금은 주로 제네바로 이주해 온 부유한 프랑스 피난민들로부터 모금되었다. 그리고 질병과 가족문제, 재산의 상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가난한 프랑스 피난민들에게 배부되었다. 프랑스기금은 구빈원과는 달리 공적인 기관이 아닌 사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집사직함을 가진 평신도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집사들은 돈을 모금했고 배분했으며 영수와 지출에 관한 계정을 정리했다.

프랑스 기금은 칼뱅의 관심과 큰 개인적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구빈원과는 다른데 이는 사실상 칼뱅이 프랑스 기금의 설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기금의 회계장부에는 초창기부터 그가 가장 후한 변함없는 개인 후원자였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칼뱅이 이 자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급여에서 후원한 것이다. 프랑스 기금에 대한 칼뱅의 관심은 기금을 관리하던 집사들은 다음해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칼뱅의 집에서 모이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201)</sup>

프랑스 기금의 기원에 관해 올슨(Jeannine E. Olson)은 아직 분명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장통(David Busanton)이라는 초기 피난민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그가 상당한 액수의 유산을 슈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의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유언한 것이 프랑스 기금의 기원이라고 보는데, 아직 논의의 과정 중에 있을 뿐이다.<sup>202)</sup> 올슨은 제네바의 프랑스 기금은 1545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본다. 바로 그해에 부유한 피난민이 종교적 난민의 후원을 위해 슈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 남긴 돈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금은

---

199)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64.

200)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23-24.

201)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64.

202)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Cranbury: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9), 33.

1550년에 실재했고 활용되었는데, 그때의 회계장부가 남아있으며 집사들이 기금을 관리했다. 따라서 프랑스 기금은 1545년 직후부터 설립되었고, 1549년에 조직화되고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때는 바로 프랑스에서 제네바로의 종교적 유입이 시작될 때였다.

프랑스 기금은 3명의 집사들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가장 유명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장 뷔데(Jean Budé)였다. 그는 12년간 프랑스 기금의 장부를 보관했고, 1587년 사망시까지 기금과 관련한 봉사를 했다. 프랑스 기금 관리 집사들의 주된 과업은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고, 그것을 가난한 피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기금 기부자 명단은 집사들이 보관했는데 기부자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칼뱅주의 책들을 발간하는 인쇄업자도 있었다. 집사들은 기금모금에 있어서 그들을 도울 모금인들을 모집했는데, 모금인들은 제네바 피난자의 지역사회에 기부를 요청하러 다녔고 프랑스에 남아있는 개신교도들에게도 기부를 의뢰하기도 했다. 프랑스 기금은 개인유산에 의해서도 증대되었으며, 후에 기금은 자산관리를 위해 회계감사관을 두게 되었다. 이는 기금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 엄정을 기한 것으로서 집사들의 기금에 대한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sup>203)</sup>

프랑스 기금을 관리하는 집사들은 기금을 다양한 자선 프로젝트에 사용했다. 기금운용 집사들은 종합구빈원의 할당의 실제적인 건물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집사들은 특별한 필요들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했는데 수입이 있는 피난민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그들을 거주할 곳으로 이주시키거나 지역 숙박소로 옮겨주었다. 이런 과정에서 집사들은 침대를 필요로 하는 피난민들에게 공급해주었다.

음식이 부족 피난민들에게 집사들이 곡물을 공급해주었다. 그러나 구빈원과 같은 규모의 배급처를 세우지는 하지는 않았다. 기금을 관리하던 집사들은 직업이 필요한 피난민들에게 집사들은 필요로 하는 연장을 마련해주기도 했고, 도제훈련 비용을 지급했으며. 피난 오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기에게는 집사들이 유모나 보모를 고용해 주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피난민들에게 제공되었는데, 이를 위해 외과이발사 겸 의사와 약제사를 유급으로 고용되었다. 또한 집사들은 의복을 공급하기도 했고, 양복 재봉사 등으로 고용했고, 다른 피난민을 이 업무

---

203) Robert M. Kingdon,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224-27.

에 고용하기도 했다.<sup>204)</sup>

그러나 프랑스 기금의 집사들의 기금사용이 자선의 영역에서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복음전파 사업에도 다양하게 기금을 사용했다. 집사들은 칼뱅의 성서강해나 설교들을 복사하기 위해 급료를 주고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16세기의 가장 큰 인쇄사업 중의 하나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새로운 시편이나 찬송가집을 출판하는 것이었다. 제네바에 중심을 둔 인쇄조합들이 판매금중 일부를 프랑스 기금에 내는 조건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인쇄협정중의 하나였는데 이 인쇄들 중 일정 부분은 프랑스에서 시편과 신앙서적들의 배포에 사용하였다.

프랑스 기금은 프랑스에서의 사역지 배분을 기다리는 목사나 사역 중에 순직한 개혁교회 목사의 미망인이나 고아가 된 자녀들에 대한 후원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초기에 프랑스 기금은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기금이 발전하면서 칼뱅의 제네바 목사회는 회원 중 한 명을 기금에 대표자를 파견하였는데 그것을 돕고 부유한 피난민들을 설득해서 희사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sup>205)</sup>

칼뱅이 프랑스 기금에 대해 기울였던 관심에 대해 박경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칼뱅은 제네바의 종합구빈원보다 프랑스 기금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루터가 공익 현금함을 설치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려 한 것처럼, 칼뱅도 자선기구의 제도화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피난민들의 복지를 보장하려고 했다. 장로들을 통해 꾸려간 컨시스토리 제도만큼이나, 집사들을 세워 운영한 프랑스 기금은 당시 제네바의 중요한 제도였다.<sup>206)</sup>

이처럼 프랑스 기금은 제네바로 유입되는 프로테스탄트 난민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시작되었고, 칼뱅의 구체적인 관심과 개입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교회의 집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 요청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칼뱅과 제네바 교

---

204) 위의 책, 226-27.

205) 위의 책, 227-28.

206)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16.

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 2. 프랑스 기금과 사회적 약자들

프랑스 기금은 당시 유럽에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의 다른 기금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금의 사용대상이 피난민들이라는 점이었다.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한 프랑스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집사들은 긴급구호용 목적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기금에만 의존해 살게 하지 않도록 재활사업도 펼쳐나갔다.<sup>207)</sup>

제네바의 지역 사회복지 기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막대한 피난민들의 유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프랑스 기금 덕분이었는데, 이 기금의 배후에 있는 힘은 제네바의 프랑스 피난민들로부터 나왔다. 비록 프랑스 기금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기금은 제네바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의 공유된 신념, 즉 종교적 이유로 오게 된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의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sup>208)</sup>

프랑스 기금은 현실적인 삶과 이상 양자 모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칼뱅의 사상은 이 독특한 기구를 설립해야 할 실제적인 필요와 사회적 신학적 사상을 결합시켰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와 교회의 집사들의 역할에 대한 칼뱅의 생각은 프랑스 기금이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개념의 틀을 제공하였다.<sup>209)</sup>

집사들은 프랑스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을 수행했는데, 칼뱅은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구제의 임무를 스테반과 여섯 집사들에게 위임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즉, 공동체의 필요인 복지를 다루었던 집사의 직분을 프랑스 기금과 관련시켜 구상하고 실천한 것이다. 집사들이 공동체

---

207) Jeannine E. Olson, "The Bourse Française: Deacon and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Pacific Theological Review* (1982), 251.

208)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21-25.

209) 위의 책, 29-30.

의 사회복지적 필요들을 다루는 데서 기원한 점에 착안하여 이것을 현실 속에서 프랑스 기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물론 프랑스 기금은 교회법령에는 언급되지 않는데 이는 교회법령은 피난민의 거대한 유입 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기금관련자들은 1554년 칼뱅의 집에서 선출된 후 장부책에서부터 등장하며, 처음에는 집사라고 불리지 않았는데, 집사라는 이름은 1550년대 후반과 1560년대에 이르러 유명한 공식 기록 등에 관리자, 그리고 ‘가난한 외국인을 위한 기금의 집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sup>210)</sup>

울슨은 교회법령 안에서의 시 구빈원과 관련된 집사들의 언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프랑스 기금과 관련해서 집사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는 16세기 당시 사람들은 집사라는 용어의 구어체적 사용에 있어서는 구빈원의 집사보다는 프랑스 기금의 관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 기금과 관련한 집사의 직무에 대하여 칼뱅은 교회법령에서 보다는 설교와 서한문들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칼뱅은 집사들의 직무에 대해서 60세 이상의 과부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방문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칼뱅은 성서를 그 근거로 사용하는데, 성서와 초대교회는 선례를 제공해 주었고, 제네바의 특수한 상황은 실제적 지침을 주었던 것이다. 1581년의 교회법령에는 프랑스 기금을 위해서 집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회계장부에 나타나는 기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추천하는 자로서의 칼뱅의 언급은 기금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준다.<sup>211)</sup>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기금은 모든 방면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난민을 위한 기금의 역할은 그 목적이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았다. 현실적으로 집사들은 다양한 처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그들 중에는 남은 생애를 다 복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하룻밤 묶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경우에서부터, 나이 들고, 불구이고, 재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아픈 사람들의 복지 차원에 이르렀다. 한편 종교적인 난민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에서의 피난민들도 물론

---

210) 위의 책, 30-32.

211) 위의 책, 32-36.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들은 실제로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제한된 의복, 덮을 것도 없었고, 침대나 가정용품도 없는 상태였다. 난민들 중에는 피난 온 세공업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술은 있었지만 작업도구가 없었고, 전문기술인들은 그들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경제에 흡수될 수 없었다. 그들 중에는 개신교인이 된 성직자와 같이 유용한 기술을 가지지 못한 자도 있었다. 이런 자들을 위한 집사의 해결책은 그들을 재교육하는 것이었다.<sup>212)</sup>

이처럼 프랑스 기금에서의 집사의 역할은 건강한 피난민들은 가능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고, 집사들은 임시 주거지, 단기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직업재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왔다.

집사들은 피난 온 세공업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구입해주었는데, 그들 중 일부에게는 간단한 장비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는 털 깎는 기계를, 목수들을 위해서는 관련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지원은 적은 지출을 가지고도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다. 집사들은 그들 지출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도 했고 때때로 기금은 그 액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장사하는 사람을 위한 가게의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러했다. 개인에 대한 기금후원은 종종 기부자나 목사의 특별 추천에 의하기도 했는데 몇몇 경우에 칼뱅이 관련되어 있었다.<sup>213)</sup>

16세기 중반에는 사망률이 높았고 많은 가정들이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경우 가장이 죽었을 때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연금이 없을 경우, 기금이 지원되었다. 집사들은 이러한 외로운 사람들, 대부분 여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데, 어려운 형편의 여인들에게 바느질감을 제공해 줌으로 혹은 고아 아이들을 맡겨줌으로서 그들의 가난에 대해 돕고자 했다.

집사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집을 빌려주기도 했다. 사실, 과부들을 위해서 가장 보장된 긍정적인 해결책은 재혼이었다. 과부들의 열악한 재정전망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들 중 몇몇은 재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집사들이 돕기도 했는데, 과부들의 남편될 사람이 부담해야 할 짐이었던 과부의 첫 번째 결혼으로 인

---

212) 위의 책, 37-39.

213) 위의 책, 39.

한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피난민의 가족 중에서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홀아비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정후원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아이들이 아직 어릴 경우에는, 집사들은 그 남자를 돌보기도 했다. 이 경우에 기금은 유모들의 월급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녀가 아플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모유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가능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 중 몇몇은 고아원으로 따로 구분된 시 구빈원이나 건물들에서 양육되었다. 가난하고 아주 병약한 부모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부모들, 사망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프랑스 기금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들을 위한 생계비, 의류비, 의료비 계산서 등이 어린아이들의 이름과 더불어 기록된 자료가 남아있다.

프랑스 기금은 십대를 위해 도제훈련 비용을 후원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고아들을 위한 기금의 역할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생존해 있는 부모가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는 자일 경우, 아이들을 위한 기금후원이 필요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이 도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경비지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난한 가정이라면 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집사들은 학생들에게 학교 등록금을 대신 대주기도 하고 가끔씩 성인들을 위해 심지어는 결혼한 여인들에게도 후원해 주었다. 집사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아픈 학생들을 돌보기도 했다. 의료봉사는 기금이 제공하는 중요한 것이었으며 집사는 이 분야에 많은 돈을 지급했다.<sup>214)</sup>

울슨은 프랑스 기금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당시 사회복지기능이 지역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음에 반하여 프랑스 기금은 외국의 가난한 자들에게 까지 확대된 그것의 반경이 국제적이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언급한다.<sup>215)</sup> 기금의 지세한 지출내역이 1559년에서 1562년의 프랑스 기금장부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출이었음을 볼 수 있다.<sup>216)</sup> 이처럼 프랑스 기금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

214) 위의 책, 40-46.

215) 위의 책, 182-83.

216) 구체적인 지출목록은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었는데, 특히 아픈 사람이나,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직무 태만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게으른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sup>217)</sup>

프랑스 기금에서는 종합구빈원보다는 훨씬 더 칼뱅과 제네바 교회의 집사 직을 통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디아코니아의 실천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과 고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기금은 성서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함께 있는 거류민’(레19:34)<sup>218)</sup>과도 같은 가난한 피난민들이 낯선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the Bourse française*, 50-69를 보라.

217)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138-39.

218) 구약성서 레위기 19:4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 V. 결론

### A. 요약

칼뱅은 제네바에서 목회자들이 정치적 직임이나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른바 신정정치의 이상을 구현하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칼뱅은 중세후기의 사회·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프로테스탄티즘의 발흥과 확산의 중심지로서의 제네바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성서적 사회·경제 이해와 디아코니아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응답해 나갔으며, 그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응답의 중심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놓여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칼뱅은 부스마(W. J. Bouwsma)가 적절히 표현한대로 “사회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으며,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사회의 토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공동체에 대한 부단한 의식”<sup>219)</sup>이라는 것이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을 통해 확인된다. 그의 이러한 공동체 사상은 성서이해에서 나온 유기체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뱅은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성서가 말하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마치 병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통치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해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점은 칼뱅의 경제윤리 가운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칼뱅의 경제윤리는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사회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는 관점을 지녔다.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상업과 부의 유익과 가능성에 대해 말하면서도 동시에 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부의 축적을 경계하고 청지기직과 재화의 상호교류를 통한 인간 공동체안의 경제적 균등함(equality)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두었다.

칼뱅은 물질적 재화를 하나님의 도구로 보면서, 특히 부의 상호적 유통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중시한다. 여기서는 특히 공동체 내에서의 재화의

---

219)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01-03.

상호교류라는 개념이 중시되고 집사직분도 결국 이것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파악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과 평등과 분배의 개념에 대해 그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칼뱅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차원으로까지 연결시켜 바라보았고, 가난한 자들을 볼보지 않는 것을 심지어 신성 모독으로까지 보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과 임금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의 잔인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임금을 하나님의 선물로 파악했다. 그는 상업 활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이자대부 문제와 관련 경제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경제이해, 즉 개인의 권리와 재화를 보장하면서 전체 사회의 필요를 존중하는 균형을 항상 추구하는 경제이해는 비엘레(André Biéler)가 칼뱅의 경제이해를 표현한대로 ‘개인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개인주의’<sup>220)</sup>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을 중심으로 한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은 교회의 구체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 실현되었다. 칼뱅은 교회가 세속화된 사회복지의 영역을 통치권의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시 정부와의 조화로운 긴장관계 속에서 거룩한 영역 즉,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다. 특히 칼뱅은 당시의 사회복지의 영역의 ‘평신도화’와 ‘합리화’라는 흐름 속에서 교회의 이중집사 제도의 실천을 통한 집사직의 회복을 통해 디아코니아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지녔지만 중세 가톨릭에 의해 제 모습을 상실한 집사직의 성서적 본질을 회복하고, 그 사역의 차원을 교회 안에서 밖으로 넓혀 제 모습을 찾게 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기금, 그리고 이 두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이중집사 제도에서 잘 드러난다. 프리차드(Rebecca B. Prichard)의 표현대로 그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성스러움과 세속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들어가는 방식’<sup>221)</sup>이었다.

---

220) André Biéler,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99.

## B. 시사점 및 제언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그의 사회·경제사상과 그 결과로서의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칼뱅은 서유럽이 중세 말에서 초기 자본주의로 이행되는 16세기의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회·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합성을 지닌 교회적, 신학적 응답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은 그의 경제이해, 특히 소유와 자본에 대해 보인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칼뱅은 종래의 이자에 대한 성서의 해석에 처음 의문을 제기한 사람으로 여겨진다.<sup>222)</sup> 그는 중세의 스콜라적인 신학전통에서의 이자대부 금지를 현실화시키고 이자 대부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물론 그는 고리대금에는 반대하면서 생산을 위한 이자 대부만을 허용했지만 그런 연유에서 칼뱅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동인을 제공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칼뱅이 보여준 자본과 부에 대한 인식, 개인과 사회공동체 전체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사상을 살펴 볼 때 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적절치 못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비엘레가 통찰력 있게 언급한바와 같이 ‘칼뱅과 초기 칼뱅주의가 그 자체 내에 산업사회의 장점들을 지니면서도 인간본성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 이윤추구에만 우선권을 두어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억제책을 준비했다는 점’에 주목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sup>223)</sup>

칼뱅이 보여준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과 이자 대부의 허용 등은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재화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필요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칼뱅의 사회·경제사상을 ‘사회적 개인주의’ 혹은 ‘개인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칼뱅이 보여준 사회·경제사상에서의 현실적합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

221) Rebecca B. Prichard,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o Cared?,” *Encounter* Vol. 54, No. 4 (Autumn 1994), 373.

222) R.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87-89.

223) André Biéler,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97.

관심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사회질서에 대해 교회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성서적 경제 질서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해준다. 앞서 살펴본 이른바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공세’는 우리 사회 안에서 소수의 절대적 부와 다수의 절대적 빈곤을 불러오게 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에서의 독점화 경향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제도와 시장경제를 결합하는 사회경제모델이 제시되기도 한다.<sup>224)</sup> 또한 교회적 차원의 대응으로 ‘사회책임 투자운동’이나 ‘대안 금융운동’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sup>225)</sup> 칼뱅이 보여준 사회·경제이해에 있어서의 개인과 공동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은 이러한 대안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둘째로, 칼뱅의 공동체 사상, 가난한 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사회적 메시지, 경제윤리사상에서 나타난 그의 사회·경제사상은 제네바에서의 구체적인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집사직의 재발견을 통해 칼뱅이 제네바에서 보여준 디아코니아의 모델은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봉사가 절실히 요청되는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주류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서 칼뱅주의자들만이 국가의 사회복지의 실천을 기독교인들의 교역으로 인정하면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국가의 자선활동의 영역으로부터 구분하여 보았음을 기억할 때<sup>226)</sup> 더욱 분명해진다.

이와 더불어 가톨릭교회에서의 집사의 역할이 지나치게 교회 내로 한정된

224) 이남주,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한반도 변혁.” 『창작과 비평』 통권 139호, (2008. 3): 21-23.

225) 채수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운동,” 『기독교사상』 통권 505호 (2001. 1): 91-100. 사회책임투자는 개인으로서의 소비자와 투자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 학교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다 인간적이고 연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에 대해 쇠자와 투자자가 공동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금융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대안은행이나 조합 등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226) Elsie Anne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류태선, 정병준 역,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75.

다는 칼뱅의 비판은 사실상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그가 보여준 교회내의 집사 직의 본질적인 역할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재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은 한국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의 회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칼뱅이 강조했던 집사직의 재발견과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는 사회봉사의 영역을 교회의 공적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회복시키는 창의적인 모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칼뱅이 프랑스 기금을 통해 보여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적실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그가 제네바에서 보여준 프로테스탄트 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대응책들은 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칼뱅은 제네바 시와 교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난민 문제에 대해, 기금조성과 구체적인 섬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조성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응답해 나갔다. 이러한 칼뱅과 제네바 교회의 노력과 실천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증하는 북한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칼뱅이 제네바에서 보여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내용들이 21세기 한국 교회와 사회의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칼뱅이 보여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사회·경제문제에 대한 현실적합성을 지닌 성서적 이해와 구체적인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통찰을 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서양서적

Abray, Lorna Jane. *The People's Reformation: Magistrate, Clergy, and Commons in Strasbourg, 1500-1598*.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Barnett, James M. *The Diaconate: A Full and Equal Order*. New York: Seabury Press, 1981.

Biéler, André.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Geneva: WCC Publications, 2005.

Bouwsma,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12 Vols.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_\_\_\_\_. *Commentaries on Four Last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Harmon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_\_\_\_\_.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salms*. 5 Vol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49.

\_\_\_\_\_. *Commentaries on the prophet Isaiah*. 3 Vol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3.

\_\_\_\_\_.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s*. 6 Vol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_\_\_\_\_.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Joel, Amos, Obadiah*. 2 Vol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0.

Heyns, Garret. "Calvinism and Social Problems." *God-Centered Living or Calvinism in Action*. ed. Calvinistic Action Committe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1: 229-43.

Holder, R. Ward. "Calvin's heritage."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60-62.

Kingdon, Robert M.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Social or Theological in Origin?" *Piety, Politics, and Power: Reformation Studies in Honor of George Wolfgang Forell*. ed. Carter Lindberg.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4: 167-80.

\_\_\_\_\_. "The Deacons of the Reformed Church in Calvin's Geneva." *Church and Society in Reformation Europe*. ed. Robert Kingdon. London: Variorum Reprints, 1985: 88-90.

\_\_\_\_\_.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ume 1. ed. Robert M. Kingdon.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0.

Leith, J. 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Lindberg, Carter.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 Welfare in the Early Reformation." *Through the Eye of A Needle: Judeo-Christian Roots of Social Welfare*. ed. Emily Albu Hanawalt & Carter Lindberg.

- Kirksville: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ress, 1994: 177-91.
- \_\_\_\_\_. *Beyond Charity: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McKee, Elsie Ann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Droz, 1984.
- \_\_\_\_\_.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 Naphy, William G. "Calvin's Geneva."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5-37.
- \_\_\_\_\_.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 Reformation*.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 Olson, Jeannine E. "Calvin and Social-Ethical Issues."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53-72.
- \_\_\_\_\_.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Cranbury: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89.
- \_\_\_\_\_. "Social Welfare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ty in  
Geneva." *The Identity of Geneva*. ed. John B. Roney and Martin I.  
Klauber. Westport: Greenwood Press, 1998: 155-65.
- Pattison, Bonnie L. *Poverty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Eugene:  
Pickwick Publication, 2006.
- Wallace, R.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 2. 동양서적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_\_\_\_\_. 『종교개혁과 21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3. 번역서적

Bainton, Ronald H.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홍치모 역. 『16세기 종교개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Biéler, André.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Green, Robert W.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이동하 역.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 베버 명제와 그 비판』. 서울: 종로서적, 1981.

McKee, Elsie Anne. *Diakonia in the Classical Reformed Tradition and Today*. 류태선, 정병준 역.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4. 해외논문 및 학술논문

Alves, Abel Athouguia. "The Christian Social Organism and Social Welfare: The Case of Vives, Calvin and Loyola."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0, No. 1 (1989): 3-21.

Douglass, J Dempsey.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Church & Society* Vol. 74 (March/April 1984): 74-81

Henderson, R. W. "Sixteenth Century Community Benevolence: An Attempt to Resacralize the Secular." *Church History* 38 (1969): 421-28.

Kingdon, Robert M.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7, No. 2 (Nov 1982): 212-30.

\_\_\_\_\_.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6, No. 1 (Feb 1971): 50-69.

McKee, Elsie Anne. "Calvin's Exegesis of Roman 12:8 - Social, Accidental, or Theological?"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3, No. 1 (1988): 6-18.

Olson, Jeannine E. "Calvin and the Diaconate." *Liturgy* 2 (1982): 78-83.

\_\_\_\_\_. "The Bourse Française: Deacon and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Pacific Theological Review* (1982): 18-24.

Prichard, Rebecca B.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o Cared?" *Encounter* Vol. 54, No. 4 (Autumn 1994): 359-73.

Scholl, Hans. "The Church and the Poor in the Reformed Tradition." *Ecumenical Review* Vol. 32 (1980): 236-56.

Stackhouse, Max L. "Protestantism and Poverty." *This World* 17 (1987): 18-42.

Sunshine, Glenn S. "Geneva Meets Rome: The Development of the French Reformed Diaconat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6, No. 2 (1995): 329-46.

## 5. 국내논문 및 학술논문

- 박경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회복지 사상: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제6회 소망신학포럼자료집』 (2007. 4): 1-35.
- 유종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통권 137호, (2007. 9): 154-55.
- 이남주.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한반도 변혁.” 『창작과 비평』 통권 139호, (2008. 3): 12-30.
- 이양호. “칼빈의 경제사상.” 『신학논단』 제20집, (1992. 8): 111-131.
- \_\_\_\_\_. “칼빈의 종교개혁의 사회사적 배경.” 『기독교사상』 통권334호, (1986. 10): 29-38.
- 채수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칼운동.” 『기독교사상』 통권505호, (2001. 1): 87-102.